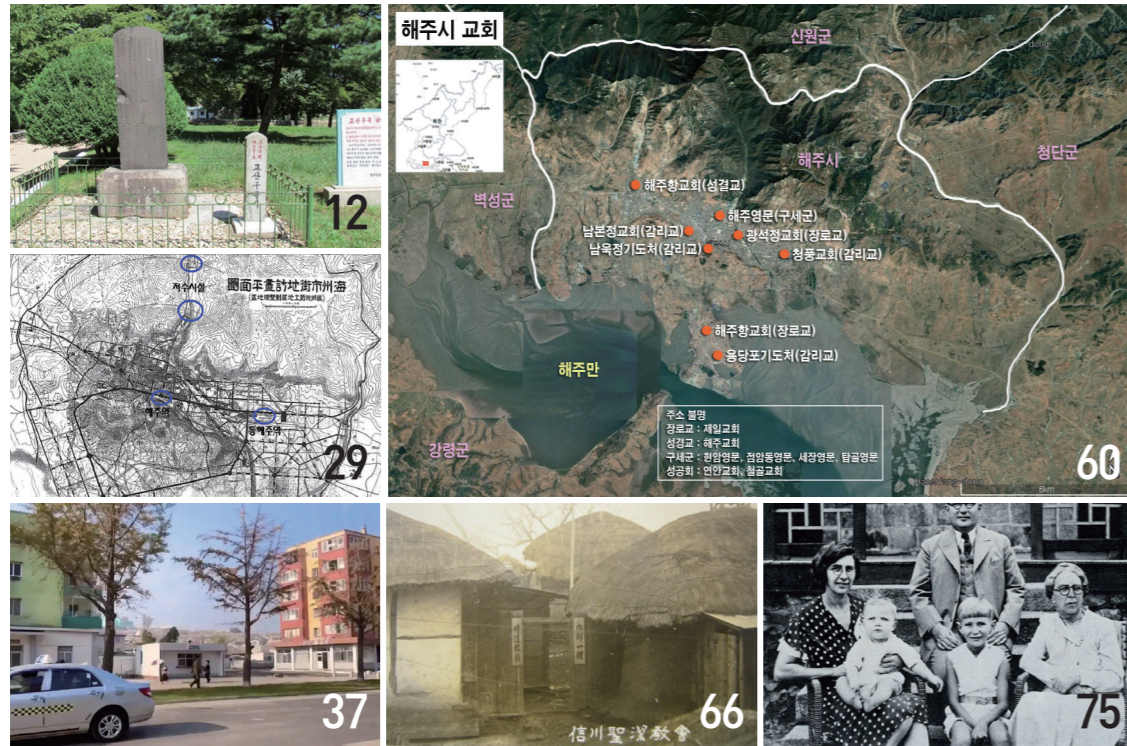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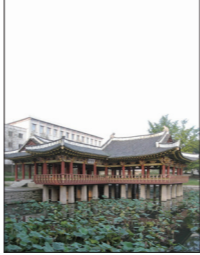


2025 봄 통권 제8호

이번호 주제 : **황해남도 해주시(海州市)**



- 02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_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 12 황해남도의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 29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_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교수)
- 37 북한 황해남도 중심 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_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44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 60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_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원장)
- 66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_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 75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_ 김철성 (목원대학교 교수)



Cover Story
 부용당(芙蓉堂): 해주시 부용동에 있는 누각으로 북한 국보 제68호로 지정돼 있다. 부용당은 1500년(연산군 6)에 해주읍성 앞의 누각으로 세운 것으로 '연못 안에 세운 건물'이라는 뜻이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5년 4월 7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82 해주를 배경으로 한 책_ 닥터 홀의 조선희상
- 84 해주 출신의 유명인_ 김구 / 최성모 / 최자실
- 86 해주의 대표음식_ 해주교반(해주비빔밥) / 강령늑차
- 88 해주의 사람 사는 이야기알고
- 95 언론에 비친 해주의 모습들
- 99 해주의 각종 개발 소식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황해도 지역은 해로가 중국과 직접 연이은 해상통로의 길목으로서 한반도에 복음이 제일 먼저 소개된 곳이다. 서해의 특성상 수많은 황해도 근교의 섬들은 중국을 통해 접근한 선박의 기항지로서 1832년에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백령도, 장산곶 방문과 1865년도의 토마스 선교사의 창린도 방문 등을 계기로 한문 성경이지만 한반도에 성경이 처음으로 전달된 지역이다. 또한 황해도는 개신교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한국인들에 의한 교회가 설립된 지역이다. 1879년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서상륜이 그의 고향 의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의치 않자, 그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연군 송천리 일명 솔내로 불리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1883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자생적 개신교회인 소래교회가 된 것이다. 1893년 평양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선교기지를 설치할 때 그레함 리(이길함) 선교사가 황해도 해서 지역을 맡아서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소래교회가 세워진 장연군(지금의 용연군)과 주변 지역인 송화, 은률군 내에 많은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안악군, 벽성군, 해주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1898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소래와 해주 근방에 42개 처 교회(교회당 12개)에 600명 이상의 교인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평양과 서울 사이에 황해도 선교의 전초기지를 어디에 세울지의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 쪽에서는 해주를 평양 쪽에서는 안악을 서로 주장하다가 제삼의 장소로서 재령을 선교부 기지로 삼을 것을 확정지었

다. 따라서 해주는 북장로교 선교부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다. 1909년 황해도 지역의 선교구역 분할협정에서 해주가 미감리교 선교부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북장로교는 해주 내의 교회와 교인을 감리교회에 양도하고 철수했다. 장로교는 43개에 이르는 교회와 460명의 세례교인과 2,000여 명의 신자를 감리교회에 넘겼다고 보고되었다. 1930년대에 와서 선교구역 분할협정이 희미해지자 다시 장로교회가 해주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벽성군 내와 황주 지역에 많은 장로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감리교회는 인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황해도 연안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고, 1901년에는 케이블 선교사를 황해도로 파송하여 “해주순회 구역” 선교를 수행하였다. 감리교 선교부는 인천에서 홍순탁, 이명숙, 고치일, 하춘택 등을 순회 전도자로 황해도 연안 지역으로 파송하여 선교사를 도와 활동하게 하였는데, 홍순탁과 하춘택은 해수에 정착하여 해주읍 교회(후에 남본정 교회)를 설립하였다. 미감리교 선교부는 서지방회(인천 중심)의 담당 지역으로서 황해도 해안가 지역 선교를 전담하게 하였고, 연안읍 교회가 김춘택 전도사를 통해 설립되어서 연안읍 교회를 중심으로 황해도 연안 지역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미감리회는 1904년에 크리켓 선교사를 해수에 파송하여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1910년 의료선교사로서 노튼이 구세 요양병원을 세우며 해수에 정착하였고, 여성 선교사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여 해수에 여성 선교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노튼은 1913년에 본국에서 스스로 모금하여 어머니의 이름을 딴 기념병원을 해수에 세웠는데 해주구세병원으로 불렸다. 노튼은 해주 주민들의 보건 의식 개선을 위하여 여러 책을 저술하였고,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최선의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는 1923년 서울의 세브란스 안과 과장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

미국 북감리회 의료선교사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료선교사로 헌신한 의사 부인을 대동하고 1926년에 한국에 온 셔우드 홀 의료선교사가 구세병원장으로 취임하고, 미감리회가 세운 의창학교의 교장직도 겸임하였다. 셔우드 홀과 그의 부인인 메리안 버텀리 홀 의료선교사는 셔우드 홀의 양친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아람담고, 모범적인 의료선교사의 삶을 본받아서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세우고, 결핵 위생학교도 세웠다.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 의료선교사는 평양에 주재하면서 광성 학교를 세우고, 남산현 교회를 세우며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4년도에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도 전염병

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불과 3년 만에 소천하게 되었다. 그의 부인인 로제타 홀 여성 의료선교사는 1898년 4살이 된 에디스 마가렛을 이질로 잃었지만 남편과 딸을 상실한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남아서 셔우드 홀을 키우면서 의료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로제타 홀은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혈 병원을 세우고(후에 장로교 병원과 합병이 되어서 연합기독병원 이 됨), 한국 최초의 맹아학교와 농아학교를 평양에 세웠다. 1917년 서울로 임지를 옮겼을 때 로제타 선교사는 동대문 부인병원 내에 여성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후에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원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녀가 설립한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으로 발전이 되었다.

셔우드 홀 의료선교사는 어렸을 적에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로제타 홀의 후원으로 도미하여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 의료인이 된 박에스더(한국 이름으로 김점동)를 결핵으로 잃게 되자, 그는 결핵 퇴치를 위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심하였다. 그는 원래 한국에서 의료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던 부모의 굴곡진 험난한 삶을 보면서 자신은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소망했으나 그의 나이 14살 때에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원산 사경회에 참석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의료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셔우드 홀의 마음의 결심과 헌신을 받으셔서 미국에서 의료교육을 받게 될 때 당대 최고의 결핵 전문의사로서 명성을 날리던 에드윈 콜브 박사에게서 의료 훈련을 받게 하셨다. 셔우드 홀은 해주구세병원과 별도로 결핵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셔우드 홀 부부는 1940년에 일본 식민당국자들의 핍박으로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감리회의 주선으로 북인도의 라지푸타나 주의 아지메르 시의 마다르 결핵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1963년 은퇴할 때까지 의료선교사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 그는 98살에 소천하였는데 두 권의 자서전을 남겨서 그 양친의 삶과 그의 의료선교사로 사는 삶을 후대의 신자들이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해주에서 감리교의 선교사역 중 주목할 만한 선교사는 1916년 해주 지방의 감리사로 임명된 그로브이다. 그는 해주 교회의 재정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게 했는데, 그의 순회 구역 13개 안의 교회 중 5곳이 자립을 이루게 되었고, 30개의 어린이 주일학교를 조직하게 하였다. 이렇듯이 십일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자급을 이룬 해주 교회의 사례는 감리교회뿐 아니라 전 한국교회에 지대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해주의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영향으로 사경회를 통한 교회 성장

과 교회 개척이 활발하였는데 성결교회는 자체 전도자를 해주로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사경회를 통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바람직한 교회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해주에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초청받은 목사는 당대의 부흥사요, 존경받는 목사로 알려진 이성봉, 이명직 목사 등이었고, 해주 성결교회의 개척 전도사로는 박문익, 김홍순, 최학철 전도사 등이 있다. 이분들은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해주 지역의 교회 목사로서 해주의 성결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해주에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구세군 교회와 성공회 교회도 설립이 되었다.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개척과 성장 사례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은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과거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 오늘날 해주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큰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남아 있는 그루터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1.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셔우드 홀의 부친인 윌리엄 제임스 홀 의료선교사가 활동한 지 3년도 안되어서 그가 치료하던 환자의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소천하게 되고, 그의 여동생 에디스 마가렛 홀도 4살이 안 되어 이질로 소천하게 된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의 고통과 절망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로제타 홀이 미국에 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여 그 남편의 생명을 향기롭게 받으셨듯이 로제타도 조선을 사랑할 수 없겠는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로제타는 하나님께 조선을 위한 의료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된다.

셔우드 홀은 그의 어머니가 세운 최초의 선교사 자녀학교인 평양 외국인학교의 학생으로 지내면서 고생하지 않는 부유한 성공적인 사업가의 삶을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디 선교사의 원산 사경회에 참석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양친을 본받는 의료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게 하셨다. 그는 이모라고 부르면서 어릴 적에 혈육처럼 의지하였던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 의료인인 박에스더의 결핵으로 인한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국에서 의료선교사로 교육을 받는 중에 당대 최고의 결핵 전문의사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뉴욕 맨해튼의 에드윈 콜브 박사에게서 의사로서 수련을 받게 된다.

1926년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와서 해주구세병원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조사였던 김창식 목사의 외아들이며 어렸을 적에 친구였던 김영진 의사와 함께 구세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김창식 목사는 은퇴하여 해수에 정착하였고, 1929년 72살의 나이에 해주에서 평화롭게 소천하였다. 그가 해주구세병원 내에 결핵 요양병원을 세우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를 죽이려 하였던 평안감사가 은퇴하여 해수에 머물다가 그 아내의 질병 치료를 계기로 크게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셔우드 홀의 의료선교사로서의 경험은 해주에서뿐 아니라 북인도 마자르 결핵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마자르 결핵 요양병원을 크게 증축하는데 지역 힌두교인 유지와 모슬렘 유지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고, 인도 카스트 사회에서 크리스마스일 발행은 실패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크리스마스일을 보급하는 일을 진행하였을 때 인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큰 나무가 베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며 그 그루터기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셔우드 홀 의료선교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또한 같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 말에 중국 동북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는 심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 당시 북한에 제일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기근과 굶주림이 만연하던 시기에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떠돌던 시기였다. 이때 수천 명의 북한의 꽃제비 아이들도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나와서 구걸하며 북한을 오고 가면서 북한의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하였다. 서탑 시장 뒷골목 허름한 여인숙이 소재하였던 곳에서 12살 사내아이를 만났는데 황해남도 해주에서 온 아이였다. 이 아이는 황해도에서 동료 꽃제비 아이들과 어울려서 두만강 국경을 넘어서 연변 지역을 거쳐서 심양 서탑 시장까지 이동하였다.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랐는데 할머니는 이 아이가 아플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아픈 것이 낫는 경험을 하곤 하였다. 또한 할머니는 옛날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중국에 나와서 우연히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아이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동료 꽃제비 아이들을 전도하여 어린이 주일학교로 인도하였다. 그는 일 년에 두세 번 북한을 왕래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였다. 늘 심양의 서탑 시장이나 연길의 서시장 골목에서 보이던 아이가 오랫동안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아이의 소식을 이 아이의 친구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잡혔을 때 어린아이라서 쉽게 풀려나곤 하였는데 동료였던 꽃제비 아이의 신고로 예수 믿고, 꽃제비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보위부의 고문을 받는 중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필자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기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을 생각하고,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해서 고기반찬을 소화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비밀 신자였던 할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자랐던 그 아이의 순교는 나에게 다시 한번 북한의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재현신하게 하였던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의 모 지역에서, 황해도 해주에서 함경도 지역으로 추방된 한 교회 지도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추방당하는 비상시기에도 성경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신자들을 소분조 단위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놀라운 간증이였다. 황해도 해주 지역을 직무상 오고 가는 북한의 한 비밀 신자의 활동은 해수와 주변 지역의 교인들에게 큰 안위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해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교인들의 헌신과 선교사의 희생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은 공산화된 땅이지만 그루터기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루터기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그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듯이 해수에 남아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동토의 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황해도 해주 지역 선교사의 연합과 교인들의 자발적 헌신과 십일조를 통한 자금 능력은 북한의 남아 있는 교인들의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되고 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지 분할 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협력과 상호 신뢰와 공동의 사역 정신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다. 장로교에서 훈련받았던 교인이 성결교회의 전도자가 되고, 감리교회의 사역자가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해주 제일교회의 사례가 있다.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사경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진정한 회개의 결실로서 삶의 획기적인 변혁과 지역 사회 공동체에 미친 거룩한 영

향력은 지금도 계승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이다. 해주에서 감리교 선교사가 시작하였지만 십일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자들의 헌신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여 나갔을 때 이것은 장로교회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뿐만 아니라 십일조 교회 문화를 통해 한국교회를 자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승되어야 할 귀중한 신앙 유산이다.

북한의 그루터기 교인들에게서 혹독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해주 지역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순금처럼 단련되었고, 사랑의 연합과 서로 간의 돌봄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교인으로서 생존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무자비하게 공산정권이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보이지 않게 교인들을 위해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지상에 공개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교인들을 보호하시며 위기 상황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광야교회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다. 순교자의 희생 토대 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참된 교회의 뿌리가 여전히 그루터기로서 보존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이다.

3.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터전 위에서 새 생명의 싹이 돋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와 수많은 생명체가 거주하는 것처럼 황해도와 해주 지역에서 심긴 신앙의 씨앗들은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토마스 목사의 평양 대동강 강변에서의 순교의 피는 그가 전달한 한문 성경을 통해서 포졸 최치량과 평안감사의 조카를 모뎀 선교사를 통해 평양에서 최초로 예수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에서 의료선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전염병으로 순직한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은 그의 조사인 김창식 가정의 온전한 헌신과 그의 아들과 딸을 의사로서 홀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홀의 희생을 헛되게 아니하시고, 그의 부인과 아들이 의료선교사로서 한국과 인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해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순교한 오현경, 오의명 목사가 있다. 오현경 목사는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해주 남본정교회를 필두로 여러 교회를 시무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1936년에 장로교로 이적하여 대봉동교회를 설립

하고, 성장시켰다. 그는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오직 목회에 전념하는 가운데 부자가 모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1951년 황해도 신천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순교한 김익두 목사의 친손자가 후에 중국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북한에서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순교 터전 위에서 손자며느리(손부)를 축복하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수용소에서 기도 중에 때가 되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김익두 목사의 손부는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황해도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장연 서부교회에서 시무하던 박경구 목사는 강양욱의 회유를 물리치고, “북조선 기독교도연맹”과 타협하지 않았다가 한국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박창환 목사를 축복하셔서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게 하셨다. 필자는 황해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신실한 그루터기 교인들의 가정 가운데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 선조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순교자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늘 보화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해주 그루터기 교회와 교인들의 소망이요, 변함없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동안 남쪽에서 풍선을 통해 물품들을 보내는 일이 공론화되지 않았을 때 해주와 주변 지역 거주민들은 남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다양한 미디어 기구들을 통해 몰래 들을 수가 있었다. 거기에는 기독교방송과 극동방송의 소리도 있었다. 휴전선과 가깝지만 철통같이 봉쇄된 황해도 내륙에서 지리적 특성상 남한의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은 황해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요, 기쁨이었다. 지금은 남쪽에서 보내지는 풍선 안에 다양한 물품들을 보내는 일이 북한 당국을 자극할 대로 자극하는 가운데 황해도 내륙의 거주민들은 수시로 행해지는 가택수색과 심한 감시와 통제 가운데 오랫동안 비밀리에 간직하였던 공간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부 세계에 공개하지 않았던 해주 지역이 2015년 이후부터 북쪽 지역의 판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동상이 있는 광장에 위치한 해주 여관(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는 유일한 호텔시설)에 숙박하고, 주변 명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손길이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 지금까지 아직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지만,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고난 받는 신자들은 북한의 통치자가 김정은 최고위원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4. 통일 이후 북한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북한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과 종족과 방언 가운데서 전략적 선교사역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안북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원산에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료선교사로 헌신한 셔우드 홀의 생애에서 나타났듯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북한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전 세계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빛을 갠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가장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로 참여할 것을 소망하였다.

셔우드 홀 부부 의료선교사는 일제의 핍박으로 더 이상 해주 구세병원과 결핵 요양병원에서 활동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북한만큼 어려운, 세계의 가장 미복음화된 북인도 힌두교와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는 라지푸타나 주의 아지메르 시의 마다르 결핵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도전과 영적 장애물을 만났지만 해주에서 경험한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23년 동안 성공적인 전략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는 40동 병상이 있는 마다르 결핵 요양병원을 400동 규모의 병상을 가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결핵 요양병원으로 발전시켰으며, 마다르 병원을 중심으로 히말라야 산악지역으로 연결된 네팔과 중국의 티벳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연합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의술만 베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마다르 병원뿐 아니라 연계된 지부 병원과 클리닉을 세웠으며 반드시 교회 및 예배 처소를 세우는 데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항상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으며, 아무리 어려운 도전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불굴의 신앙 의지가 있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선교사 자녀학교로서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이 세운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공부하였던 그리고 하디가 인도한 원산 사경회에서 그의 부친을 쫓아서 의료선교사로 헌신한 셔우드 홀의 생애는 오늘날 북한 공산정권 치하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과 마치 사라진 듯이 보이는 북한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온 피조 세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북한교회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다. 셔우드 홀을 그의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북한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황해남도의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해주는 한반도의 주요 곡창지대인 재령평야와 연백평야에 인접하고 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한 도시이다. 황해도의 대표 도시로 바닷길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을 마주 보고 있다. 해주의 앞바다는 인천과 경기도 서쪽 한강의 강구를 중심으로 황해도의 웅진반도 남단 등산곶과 충청남도의 태안반도 사이에 있는 경기만(북한에서는 강화만이라고 칭함)을 이룬다. 한반도 서해를 대표하는 경기만은 한반도 해안교통의 중심을 형성하여 주요 항구로 해주항, 인천항, 평택항이 있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경기만은 북한의 해주만과 남한의 강화만으로 분리되어 주요 항구는 모두 군사적 기능을 덧입게 되었다. 특히 해주는 국경과 인접한 이유로 북한 해군의 주력인 서해함대가 주둔하여 군사도시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

1. 해주의 발전사

해주는 고구려 시기에 내미홀(內米忽), 통일신라 시기에 폭지군(瀑池郡)으로 불리었으며 고려 시대에 들어 태조가 이 고을이 남쪽으로 큰 바다에 면해 있어 해주(海州)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려 성종 2년(서기 993년) 전국을 12목(牧)으로 나눌 때 해주목이 되었고 이후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로 승격되었으며 예종 17년(서기 1122년)에는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조선 초기 전국이 8도로 개편되며 해서지방을 황주와 해주의 앞글자를 따 황해도로 명명하였다. 황해도의 감영은 해주에 위치하였다. 조선시대 내내 황해감영의 집무공간이었던 선화당은 지금도 해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남아있다. 선화당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신축 도청이 들어서기까지 황해도청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1) 조선 중·후기 유학과 동학의 도시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는 해주 출신의 권씨와 결혼하며 해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로 해주는 율곡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가 된다. 이이는 39세였던 1573년 반년간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수차례 관직을 사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해주의 야두촌에 은거하며 학문의 터를 닦았다. 그가 1578년 해주 석담에 설립한 서원 은병정사(隱屏精舍)는 이후 이이를 따르는 문인들에 의해 소현서원(紹賢書院)으로 발전한다. 소현서원은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을 배



1578년 해주 석담에 설립한 서원 은병정사(隱屏精舍)는 이후 이이를 따르는 문인들에 의해 소현서원(紹賢書院)으로 발전한다.

향하며 서인계의 대표서원으로 자리매김한다. 소현서원은 이이의 유품이 보관되었을 뿐 아니라 이이의 저작들을 간행하고 목판을 보존하는 장소로서, 18세기 조정에서 간행한 율곡전서의 간행처 역시 해주의 소현서원이었다. 17세기 노론의 문인들에 의해 이이가 ‘동방의 주자(朱子)’로 추앙되면서 소현서원은 노론과 서인의 구심점이 되어 수많은 유생들이 해주에서 수학하거나 해주를 방문하여 해주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¹⁾ 그중 유명한 저작은 유만주(兪萬柱)의 흠영(欽英)이다. 1782년 해주목사로 부임한 유한준(兪漢鵠)의 아들 유만주는 1782년 9월 해주를 방문하여 그 경험을 흠영(欽英)이라는 책으로 남겼다. 유만주는 9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고양, 파주, 장단, 연안을 거쳐 9월 15일 아침에 청단에 도착했다. 그는 한 달여간 해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 그가 묘사한 해주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성이 말(斗)만한 크기로 성문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다. 그는 해주의 중심부를 흐르는 광석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단풍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빨래하는 여성들도 채색 소매의 화려한 옷들을 입었다고 전한다. 유만주는 성대하게 치장을 하고 남을 피하지 않는 해주 여성들을 가리켜 음풍(淫風)이 많다고 혹평한다. 또한 해주를 도성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지만 도시의 모습이 네모반듯하고 선을 그은 듯 정돈된 것을 보니 큰 고을이라 칭할만하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작기 때문에 온축되어 흩어지지 않는 의취가 있고, 완정하기 때문에 거칠지 않은 의취가 있다.”는 말로 해주를 정리한다.²⁾

황해도는 구한말 동학이 흥성했다. 동학운동 당시 가장 큰 규모의 민중이 호응한 지역이 정읍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와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

1)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제 61집』, (서울: 2019)

2) 김하라, “유만주의 해주 - 음영에 나타난 18세기 해주의 역사지리학-,” 『한국한문학회연구』 77권(한국한문학회, 2020) pp. 199, 200.

역이었다. 황해도 동학군은 1894년 양력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황해도 장연 소래마을에 머물던 매켄지 선교사는 황해도의 동학교도들과 7개월간 함께 지내며 “동학과 함께한 7개월(Seven months among the Tonghak)”이라는 글을 남겼다. 매켄지는 동학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0월 말 내 습관대로 이웃 마을 중 하나를 방문하는 길에, 일단의 무명옷의 용사들이 모두들 황해도의 수도(해주)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아주 놀랐다. 그들은 그다지 대단찮은 차림새였다. 그들의 유일한 장비는 어깨에 걸친 열흘치의 식량과 보통의 낫손가락을 넣은 조그마한 가방뿐이었다. 자기들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을 보고는 모두들 놀랐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확산시키는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다.³⁾

매켄지가 만난 동학군은 결국 11월에 해주의 황해 관아를 점령하였다. 비슷한 시기 전라도 동학군 역시 전주의 전라 관아를 점령하였다. 전라도의 동학군은 관아 점령 후 지역 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혼란을 빚었음에 반하여, 황해도 동학군은 각종 행정문서를 소각하고 스스로 감사와 수령을 임명하는 등 ‘모반’의 면모를 갖추었다. 전라도 지역의 동학 주력군이 1895년 초 소탕된 이후에도 황해도 동학군은 세력을 유지하며 1895년 여름까지도 치열하게 저항하며 활동을 지속했다. 동학농민운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서인 『갑오실기』에 따르면 1894년 동학군 지도자들이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을 당했다. 이후 동학의 세력이 가장 강성했던 전라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는 각각 지도자 김개남과 성재식의 수급을 주민들이 사이로 조리돌림했다고 전한다. 해주성 점령 직전인 11월 3일 해주성 서쪽 취야(翠野)에 모인 동학군은 수만 명이 되었다. 당시 해주성 탈환을 위해 출동한 일본군은 황해도의 3분의 2가 동학도라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⁴⁾

당시 해주의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유명한 인물로 백범 김구와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이 있다. 해주출신의 김구(당시 이름 김창수)는 1893년 정초 동학에 입도한 후 19세에 팔봉접주(八峰接主)가 되어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海州城) 공략에 참가했다. 신천군의 진사 안태훈은 지방유림의 지도자로서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에서 아들들과 산포수 300여 명을 거느리고 동학군 토벌을 위한 의려소를 구축하였다. 황해감사 정현석은 그에게 의려장이라는 신분을 내렸다. 안태훈은 동학군 지도부를 공격하여 조총 9자루와 환도, 투구, 갑옷 등의 전리품을 획득하며 동학군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후 그는 해주성 공략에 실패한 김창수(김구)를 숨겨주는 온정을 베풀기도 하였다. 1895년 12월 동학군은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쇠퇴하였으나 이후 1900년까지도 재령, 신천, 해주 등에서 동학교도들의 활동 소식이 전해졌다.



해주성 전투 기록화. 황해도 동학농민군은 1894년 해주성 공격에 나서 관·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사진: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2) 일제강점기 미곡반출 창구로의 발전

1906년 경의선이 개통하며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은 경의선이 통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경의선 개통과 함께 황해도에서는 평산, 사리원, 황주지역이 급성장하였다. 철도에서 소외된 해주는 1910년대 조선팔도의 도청소재지 중 발전이 가장 늦었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⁵⁾ 해주는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해주의 용당포는 유리한 지리조건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낙후하여 대규모 물자 수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주의 항만을 발전시킨 것은 일제의 미곡반출이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이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황해도의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많은 개인소유의 농지가 공유지로 판정되어 총독부에 귀속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피해와 더불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농지매입이 가속화되어 1915년 기준 황해도 농지 중 15% 이상이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시위와 분쟁이 해주를 비롯한 황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은 전 세계로 상품시장을 확대하며 공업화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노동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일본내 쌀부족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민간기업을 통해 조선의 쌀 매입을 가속화하여 조선의



황해도는 조선의 곡창지대로 일제의 미곡 수탈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이다. 해주항은 미곡 수탈의 통로로 활용되었다(사진: 인천투데이)

3) William John Mckenzie, “Seven Months among the Tong Hak,” 『The Korean Repository』 June, 1985를 이영호 “황해도 동학군의 해주성 점령,” 『동학학보』44권, (동학학회, 2017) p. 267에서 재인용.

4) 이영호 “황해도 동학군의 해주성 점령,” p. 273.

5) 최지해, 「1896-1945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철도노선의 확장이 가져온 지역거점 도시공간의 변화」(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 187, 188.



일제가 해주를 화북과의 교역 중심지로 지정한 이유는 해주가 중국화북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서해의 부동항 중 최북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한 계획이었다.

루어진 지역 중 하나이다. 해주의 용당포는 대규모 물자 수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항만의 가동은 포화상태를 유지하였고, 용당포항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량은 인천항을 통해 반출되었다. 해주의 지역유지들은 지속적으로 총독부에 항만 증설을 요구하여 1928년 10월에는 총공사비 50만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축항 공사를 벌이게 된다. 해주항은 공사 시작 2년만인 1930년 10월에 완공되어 조선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해주항 축항 2개월 후인 1930년 12월 경의선의 사리원역과 동해주, 용당포가 철도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 노선은 해주 시내를 경유하지 않아 해주 시내의 업체들은 노선의 수혜를 제한적으로만 입게 된다. 1932년 9월 경의선 남부 개성 인근의 토성역과 동해주역을 잇는 철도가 완공되었고 뒤이어 해주 시내까지 지선이 연장되며 해주시내에도 철도가 연결되어 해주 시내의 경기 활성화로 가져오게 된다.⁶⁾ 황해도 지주들 중 대다수는 상업과 대금업을 겸업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황해도 곡창지대의 쌀이 해주를 통해 반출되기 시작하며 해주의 상업과 대금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핵심세력의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30년대 항구의 증축과 철도 개설 이후 해주는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황해도 각지에서 올라오는 벼를 도정하기 위한 정미산업이 발전하였고 1937년 일본의 시멘트회사 우부양회(宇部洋灰)에 의해 연간 36만 톤을 생산하

쌀값폭등을 가져왔다. 조선의 평균 쌀값을 보면 1916년 1석당 14원 57전에 거래되던 도정미는 1917년 19원 47전에 1918년에는 30원 18전에 거래되었고 1919년에는 39-40원에 거래되어 270%의 상승률을 보였다.⁶⁾

황해도는 조선의 곡창지대로 일제의 미국 수탈이 가장 심하게 이

는 조선 최대의 시멘트공장이 해주에 세워졌다. 1938년 1월 해주시 울동리에 조선화학제조회사 해주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우부(宇部)계열 대철공장(大鐵工場) 또한 해주항 동해리에 들어섰다. 이 무렵 해주는 중국의 하북(河北, 북경과 천진을 아우르는 중국 북부의 중심지) 지역과의 교역을 위한 대하북교역도시화(對河北交際都市化)가 진행되며 일본의 대기업들이 해주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대하북교역도시화는 일제가 해주항을 일만지경제(日滿支-일본·만주·중국-經濟)의 내해로 만들고자 하는 황해호수화(黃海湖水化)계획의 중요 거점으로 지정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제가 해주를 화북과의 교역 중심지로 지정한 이유는 해주가 중국화북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서해의 부동항 중 최북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한 계획이었다. 해주보다 북쪽에 위치한 신의주와 진남포도 부동항으로 볼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항구 주변을 떠다니는 유빙(流氷)으로 인해 항구기능에 한계가 있었다.⁸⁾

일제강점기 해주의 인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1911	14,933	1,198	12	16,163
1915	13,881	1,669	43	15,593
1918	12,439	1,492	40	13,971
1920	12,868	1,477	92	14,437
1922	13,968	1,624	147	15,739
1923	14,351	1,931	155	16,437
1925	15,121	1,977	191	17,289
1928	17,597	2,078	180	19,855
1930	20,234	2,640	342	23,216
1935	26,356	3,080	252	29,688
1936	41,140	3,942	592	45,674
1936	44,961	4,703	236	49,899
1939	49,512	6,080	399	55,991
1940	53,436	6,400	428	60,264
1942	74,756	6,260	704	81,720

일제강점기 해주의 인구 변화,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 上, 일지사 1992 p.132를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 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p. 46에서 참고.

8) 서일수, “1930년대 해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식민권력’”, 『한국사연구』 167권, (한국사연구회, 2014) pp. 172-175.

6) 김철현, 「황해도 해주 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 10, 11.
7) 최지해, 「1896-1945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철도노선의 확장이 가져온 지역거점 도시공간의 변화」 p. 191

해주의 대하북교역도시 지정 이후 해주의 도심은 확장을 거듭한다. 1936년 영동면의 3개 리와, 서벽면의 7개 리가 해주읍에 편입되어 1930년대 후반 해주의 인구증가율은 105.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선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66%였음을 고려하면 해주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⁹⁾ 발전을 거듭하여 1939년 해주는 부(府)로 승격하였다.

2. 해주의 공간구조

1) 지리

해주는 황해남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로서 북부는 신원군, 동부는 청단군, 서부는 벽성군과 맞닿아 있다. 인구는 27만 3천여 명이다. 이는 북한의 도 소재지 중 혜산(양강도, 19만 2천명), 강계(자강도, 25만 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규모이다.

도시	신의주(평북)	강계(자강)	혜산(양강)	청진(함북)	함흥(함남)
인구	359,341	251,971	192,680	667,929	768,605
도시	원산(강원)	해주(황남)	사리원(황북)	평성(평남)	
인구	363,127	273,330	307,764	284,386	

표 북한의 각 도 인민위원회 소재도시의 인구,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해주는 도시 남부가 바다에 인접한 전형적인 북고남저의 지형을 보인다. 북부에는 수양산, 설류봉, 장대산 등 500m 이상의 봉우리로 이어지는 수양산맥이 뻗어 있고 남쪽에는 남산, 선녀봉 등 50m~100m의 얇은 구릉들이 솟아 있다. 해주는 북한의 도시 중 평지의 비율이 높은 도시이다. 전체 면적에서 해발 200m미만의 평지 및 구릉지역이 90%를 차지하며 동쪽에는 장방평야, 서쪽에는 신광평야가 있어 동서로 길쭉한 도시 형태를 보인다. 시내 남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시내 동쪽에는 북쪽에서 흘러와 남쪽의 바다로 흐르는 광석천이 있다. 해안에는 용당반도가 돌출되어 해주항의 정박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저수지로는 옥계2저수지, 석산저수지, 청년저수지 등이 있어 수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북한의 선전에 의하면 2005년 이후부터는 자연흐름식 물길인 '전진물길'을 건설하여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해주시 중심지인 양사동에는 대규모의 수양거리가 조성되었다.

9) 서일수, "1930년대 해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식민권력'," p. 160.



해주는 광석천을 중심으로 동해주와 서해주로 나뉘며 시내 중앙을 평양-남포 1급도로가 지나고 있다.

2) 교통

해주시는 황해남도 교통의 요지이다. 광복 전에 일제가 해주-토성, 해주-신원, 해주-웅진 간 협궤 철도를 부설하였다. 황해도의 간선철도로 해주시와 사리원 사이에 황해청년선(총연장 100.3km)이 있다. 북한정권은 해주항이 축항된 1930년 12월에 개통된 사리원-해주 노선에 1944년 10월에 완공된 황해본선(사리원-하성)과 해방 후 부설된 해주선(신원-해주)을 합하여 "황해청년선"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주역은 해주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해주시내를 거치지 않고 용당포항으로 향하였다. 1932년 개성과 동해주를 연결하는 웅진선(40.4km)이 개통한 이후 해주 시내에도 철도역이 개설되었다. 해주 시내와 해주항을 잇는 선은 정도선(鼎島線)이라 명명되었다. 웅진선은 6.25 당시 파괴되어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해방 후 1958년 해주-하성 간에도 철도가 부설되었다. 해주청년선, 웅진선 이외에도 해주시와 배천을 잇는 배천선(59.7km)과 신강령과 부포를 잇는 부포선(19.1km)이 있다. 해주시의 주요역으로는 해주청년역, 학현역, 매화역, 장방역, 정도역, 서해주역, 문정역이 있다.

도로망은 해주-사리원, 해주-개성 간 1급도로와, 황해남도 내의 여러 지역과



1958년 8월12일 열린 해주-함성 철길 개통식장의 모습 (사진: 뉴스1)

이어지는 2급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 중 해주-사리원 도로는 사리원을 거쳐 평양까지 이어지는 폭 12m의 전 구간이 포장도로이며 해주-개성 도로는 노폭과 포장상태가 구간마다 다른 상황이다. 해주-장연, 해주-리목, 해주-용연, 벽성-해주, 재령-해주, 신원-해주 간 버스(씨비차)가 운행되고 있다.

해주의 남쪽 용당포에 위치한 해주항은 예로부터 서해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이다. 1921년 해주-인천 항로가 개설되었고, 1932년 부두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정비가 이루어지며 2,000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항구로 발전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항구 시설이 1962년 복구되었다. 지리적으로 남한과 가까우며 군사구역 내에 위치한 이유로 6.25이후 해주항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1973년에 들어 해주항이 시멘트 전용항으로 확장 개항하여 시멘트 선적을 위해 해주시멘트공장에서 해주항까지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었다. 해주항은 최대 1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조수차

이가 심하고 수심도 10m밖에 되지 않아 6,000톤급 미만의 선박만이 입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주항에는 시멘트 운반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이외에도 협궤철도가 시멘트공장 내부까지 이어져 있다. 해주항의 동시 접안능력은 31척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240톤으로 알려졌다. 해주항의 주요항로는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는 250해리 연해항로가 있으며, 해주와 상해, 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비정기 항로가 있다.

3) 해주의 산업

평양에서 출발하여 수양산 기슭을 통과하여 해주시 입구에 들어서면 대형 모자이크 벽화에 “황해남도농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친필 교시가 쓰여있다. 이렇듯 황해도는 북한의 농업 생산량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감당한다. 해주는 황해도의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농경지의 면적이 작다. 해주의 농경지는 시 전체 면적의 20.9%를 차지하며 그중 논이 40%, 밭이 47%, 과일밭이 11%이다. 주요 생산물로는 쌀, 옥수수, 콩 등이 있으며 작천지구의 청무, 석천지구의 미나리가 유명하다.

1973년 해주항의 대규모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해주는 북한 9대 공업지구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해주의 주력산업인 시멘트산업을 비롯하여 건재, 화학, 기계, 금속, 조선, 도자기 등의 산업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주시멘트공장은 1936년 일본의 우베(우부, 宇部)시멘트사에 의해 연산 36만 톤 4개 소성로 규모로 해주항 주변

용당동에 건설되었다. 6.25로 파괴된 시설이 휴전 직후 3개의 소성로가 복구되었고 이후 증설을 거쳐 현재 부지면적 50만㎡, 5기의 소성로를 갖추었다. 공장이 가동되던 시기 공장내에 공장대학, 기능공학교, 문화회관, 유치원, 요양소, 진료소 등을 갖춘 하나의 산업타운으로 기능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1980년대부터 생산성이 약화되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제련소는 1982년 10월 해주시 석미동에 건설되었다. 부지면적은 39만㎡이며 건축면적은 약 2만㎡이다. 황해도의 락연광산, 웅진광산, 은동광산, 장연광산, 서흥광산 등에서 산출되는 연광석을 제련한다. 용당동에 위치한 해주제련소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황산, 동 등을 제련하는데, 산하에 인비료직장, 제1황산직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¹⁰⁾

해주연결농기계공장은 기존 농기계 수리소를 1959년 확장하여 대형 공장으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11만㎡의 부지에 건설되어 이앙기, 트랙터 등을 생산한다. 그 밖에도 해주의 대표 기업소로는 용연군의 규사를 활용하여 각종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해주판유리공장과 과인산석회, 황산, 동 등을 제련하는 해주제련소가 있다.

4) 해주의 시장

1984년 북한에서는 증산운동의 일환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남은 물자로 가내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8·3소비품운동이 벌어졌다. 이때 해주의 연결



해주시멘트공장과 해주항을 연결하는 철로. 해주시멘트공장은 1980년대부터 생산성이 약화되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10)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2003), p73..



해주시장에서 촬영된 북한주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농기계공장의 직원들은 콤팩트인제조용 철판으로 호미, 낫, 식칼을 비롯하여 150여 종의 철물을 생산했고, 해주종이공장에서는 재생종이로 도배지와 장판지를 만들었다.

8·3소비물품은 기본적으로 8·3직매점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수많은 상품들은 농민시장으로 흘러들었다. 1984년 북한당국은 제한적으로 농민시장을 허용한다. 당시 북한의 도시 재지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시골시장은 주로 10일장으로 운영되었다. 황해남도의 도시재지인 해주에는 1984년 해주의 중심지인 양사동에 처음으로 2,500㎡, 200개 매대 규모의 농민시장이 건립되었다. 해주시내 룡당지구, 학현지구에 소규모로 건립된 농민시장은 매일 장이 서기 시작하였으며 교외에 위치한 5개의 농민시장은 매월 1일, 11일, 21일에 10일장이 서기 시작하였다. 농민시장의 판매 품목은 채소, 약재, 부업생산물과 일부 가내수공업품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느슨한 당국의 통제로 인하여 곡물류를 비롯하여 여러 금지품목들이 거래되었다. 1980년대 후반 농민시장을 기반으로 한 암시장이 활성화되며 가구를 비롯하여 텃밭의 농산물들이 활발히 거래되었다.¹¹⁾

1990년대에 들어서며 농민시장은 점차 암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노동자 구 지역시장은 규모가 축소되어 도시외곽의 10일장은 소멸했다. 암시장의 발달과 함께 일부 북송재일교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80-90년대 해주 시내에는 200여 명가량의 재일교포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상품을 해주의 시장에 유통시켰다. 이 시기 해주에서는 ‘효모빵’이 유행을 탔는데, 이는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먹던 습관을 따라 효모를 발효시켜 빵을 만들고 참기름 등 일본에서 사용하던 식자재를 첨가하여 맛을 낸 것이었다. 북송재일교포의 뒤를 이어 해주의 화교들도 해주의 암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 해주에는 20여 명의 화교들이 상행위에 종사했다. 이들은 유류난으로 멈춘 기업소들의 차량을 대여하여 물류를 장악하였고 1990년대 중국에서 북한의 해산과 전복이 인기를 타며 해삼과 전복 무역을 독점했다.

1992년 해주 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해주경기장 일대 20,000㎡의 공터와 동해주에 조성된 1,000㎡의 암시장을 공식 시장으로 지정하였다.

11) 곽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12, 13.



2022년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주에는 양사시장(21,303㎡), 새거리시장(11,560㎡), 서애시장(4,235㎡), 학현시장(2,881㎡) 등 4개의 공식 시장이 있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해주에는 이미 앞서 언급한 시장들이 존재했으며 1998년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주시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되고 있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2003년 3월 북한은 전국차원에서 종합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때 해주의 주요 시장도 모두 양성화되었다.¹²⁾

2022년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주에는 양사시장(21,303㎡), 새거리시장(11,560㎡), 서애시장(4,235㎡), 학현시장(2,881㎡) 등 4개의 공식 시장이 있다. 이 중 2014년 이후로 해주시 동쪽지역이 개발되며 해주시 동쪽에 위치한 새거리시장이 확장을 하였다. 해주시 동부에 위치한 새거리시장은 기존 시장의 도로구간, 사거리, 주변 철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철로 근접지역 남쪽 일부를 줄이고 동쪽 수원지 옆 도로를 줄이는 대신 서쪽의 대로변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9,790㎡의 면적이 11,560㎡ 규모로 확대되었다.¹³⁾

12) 곽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pp. 62-66.

13) 통일연구원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108.

5) 해주의 대학

북한의 대학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37개 중앙급대학과 그 외의 일반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급대학은 명문대학으로 인식되며 지역과 관련 없이 전국에서 지원을 받는다. 37개 중앙급 대학 중 21개 대학이 평양에 위치하였으며 각 도에 1-3개의 중앙급대학이 분포한다. 유일하게 황해남도에는 중앙급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주에 위치한 일반대학 중 유명한 학교로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김종태해주사범대학, 조옥희해주교원대학 등이 있다.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은 황해남도 내 농촌부문의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농업대학이다. 1960년 12월 1일에 해주농업대학으로 창립됐으며, 북한의 첫 농민영웅인 김제원의 헌신성을 전하기 위해 1990년 10월 31일에 김제원대학으로, 이후 김제원해주농업대학으로 개칭됐다. 학과는 농학부, 과수학부, 산림하천학부, 수의축산학부, 농기계학부, 농업경영학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는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의 많은 졸업생들이 도내 배천군, 벽성군, 연안군 등 협동농장에 자원,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북한 국영미디어인 '조선의 오늘'은 22일 "최근 대학에서는 수천 건에 달하는 수백 개 과목의 강의안들을 모두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수에 이용할 수천건의 전자교수안을 작성했다", "아울러 수십 건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십종의 실험설비와 기구를 제작해 실험실습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¹⁴⁾

김종태해주사범대학은 중학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5년제 사범대학이다. 1961년 9월 1일 해주사범대학으로 개교하여 1969년 7월 12일 김종태사범대학으로 개칭하였으며, 1990년 10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학교 명칭의 김종태는 남한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을 주도한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장의 이름이다. 설치 학과로는 김일성동지 혁명역사학부, 어문학부, 외국어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생물화학부, 체육학부가 있으며, 예비교육, 교원재교육 체계가 세워져 있다.

김종태해주사범대학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2022년 6월 30일 "김종태사범대학 기숙사에서 퍼지기 시작한 신종 열병을 심상치 않게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2024년 6월 10일 노동신문은 김종태해주사



범대학에서 효능높은 식물성살충제 '멸충'을 연구도입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학에서는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연구에 나서 살충효과가 큰 식물성살충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¹⁵⁾

조옥희교원대학은 황해남도 내의 소학교교원과 유치원교양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기관이다. 1968년에 발족 당시에는 유치원 교양원만을 양성하는 2년제 교양원대학이었는데, 1972년 3년제 교원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그해 12월에 해주제1교원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해주제2교원대학과 통합, 해주교원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90년 조옥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조옥희대학으로 개칭되었다가 1997년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이 되었다. 대학에는 교원학과, 교양원학과, 체육학과, 체육무용학과 등 4개 학과와 13개의 강좌가 있다.

2022년 조옥희교원대학의 대대적 증축 소식이 당국에 의해서 홍보되었다. 최근 한 언론에 의해 한국 내부 정치정세와 관련한 강연회를 들은 조옥희해주교원대학 학생들이 강연회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2024년 12월 11일 "해주교원대학에서 연말을 맞으며

14) SPN 서울평양뉴스 '김제원해주농업대학, 농업과학기술인재 교육 성과,' (<https://www.spnews.co.kr>) 2021. 11. 22 (검색일: 2025. 02. 27)

15) SPN 서울평양뉴스 "북 김종태해주사범대학, 식물성살충제 '멸충'개발...국가과학기술성과 등록," (<https://www.spnews.co.kr>) 2024. 06. 10 (검색일: 2025. 02. 27)



조옥희교원대학은 황해남도 내의 소학교교원과 유치원교양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기관이다. 2022년 조옥희교원대학의 대대적 증축 소식이 당국에 의해서 홍보되었다.(사진: 뉴스1)

괴뢰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그런데 대학생들은 강연회에서 처음 듣는 내용에 의문을 품고 끼리끼리 모여서 발언들을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

았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뒤 마음이 맞는 이들과 삼삼오오 모여 “지시율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통령 지시율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감히 수령의 지시율을 평가하는가” 등의 질문을 서로 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¹⁶⁾

그 밖에도 해주에는 해주의학대학, 해주제2사범대학을 비롯하여 해주시멘트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해주공업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다.

6) 해주의 구금시설

북한의 구금시설은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기 위한 구류장,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임시수용하는 집결소와 교양소, 형이 확정된 자를 처벌하는 교화소와 노동단련대(미확정자 포함)가 있다. 또한 일반 구금시설과는 성격과 역할이 다른 정치범수용소가 있다. 교화소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은 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다. 북창수용소 18호관리소와 같이 사회안전성에서 관리됨에도 일부 혁명화구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해주는 국내입국 탈북민 수가 적어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도시 중 하나이다. 황해남도의 도 소재지로서 도단위의 수감, 구금시설이 해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남도 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해주시내에 있다는 황해남도 교화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해주시 산성동에 도 보위부가, 동해주 새골2동에 노동단련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16) 데일리NK, “한국 정치정세 강연회 내용에 궁금증 제기한 대학생들 불려가,” <https://www.dailynk.com/20241211-5/>, 2024. 12. 11 (검색일: 2025. 02. 26)

17) 윤여상 외, 『북한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42, 50, 56.

3. 남한과의 협력

해주는 남한의 인천, 평택 등과 함께 경기만의 주요 도시를 이룬다. 이는 남한 수도권과의 해상수송에서 유리함을 의미한다. 해주는 또한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개성과도 멀지 않아 남북 협력에 있어 지경학적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서해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정하는 가운데 해주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합의의 후속조치로 남북은 2008년 상반기 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평화협력지대 설정을 가로막는 여러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와 더불어 후보지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합의하였다. 당시 주요 의제는 해주항 개발과 서해 공동어로 평화수역 설정이었으며 궁극적 목표는 제2의 개성공업지구 건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하여 백지화되었다.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당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해주를 중심으로 ‘환황해경제권’, ‘서해평화지대’, ‘해주-개성-수도권’연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당시 논의 내용을 보면 해주의 지경학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인프라 부족, 해주항의 활용여건 취약, 북방한계선의 남북 간 이견에 따른 개발 제약, 남북한 군사시설 다수배치 등의 약점¹⁸⁾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결국 남한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해주와 관련된 남북협력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보건, 환경·경제, 도시협력, 사회문화, 화성-해주 사업의 5개 분야로 이뤄진 ‘화성-해주 남북협력 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들은 1단계 생활 협력, 2단계 상호 교류, 3단계 투자 협력, 4단계 이익 공유 등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환경·경제 분야에선 북한 공유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청사진을 제안했다. 당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북한 측의 호응이 전혀 없어 무산되었다.

18) 유보현, 『해주 경제특구 개발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32.

나가며

해주는 황해도의 중심도시이다. 황해도는 북한 최고의 곡창지대인 재령평야와 연백평야에 황해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 조선 후기와 구한말, 주요 사상과 종교가 모두 발전했다. 울곡 이이의 소현서원으로 대표되는 유교사상의 거점이 되어 유학이 꽃피웠으며 동학의 발흥 시 조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도시가 바로 해주이다. 이후 해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도 융성하게 된다. 해주는 바닷길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을 마주 보고 있는 부동항의 이점을 활용하여 발전했다. 일제강점기 대하북교역도시(對河北交易都市)로 지정되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적인 항구도시로 발전하며 주요기업들이 들어섰으며 황해도 곡물반출의 창구가 되어 물류가 발달했다.

해방에 뒤이은 남북의 분단은 해주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서해가 남북으로 갈라지며 접경지역에 속하게 된 해주는 인천, 서울로 향하는 바닷길이 막혔고, 북한해군의 주력 서해함대가 배치되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개성 등 접경지역의 협력 진행 시 해주 역시 주요 후보지였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일 때마다 남북협력의 후보지로 해주의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해주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해주는 발전을 위한 수많은 요건을 갖춘 도시이다. 이후 한반도 통일시대 혹은 남북 간 긴장이 이완될 시 남북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지정학적 요건, 도시역량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해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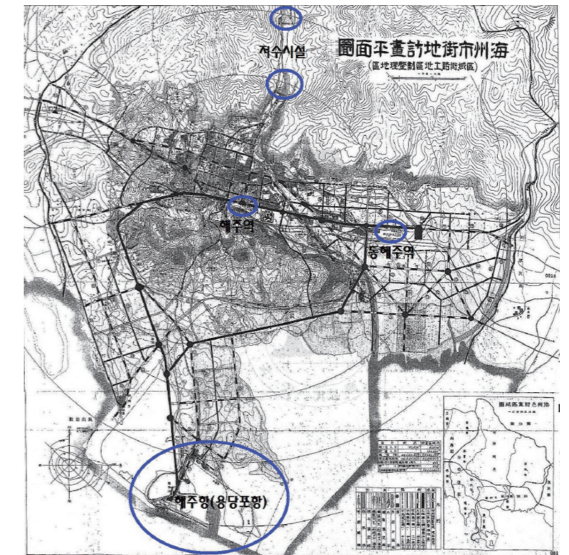
이시호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교수)

들어가며

황해남도의 유일한 ‘시’이자 도 소재지인 해주시는 26동 5리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2008년 기준 약 27만 3천 명이다.¹⁾ 해주시는 1247년(고종 34년) 이미 황해도 행정소재지로 지정²⁾될 만큼 오랜 역사와 지리적 중요성이 높은 도시였으나, 근대 도시로의 발전은 193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30년 용당포항 축항 공사 완공, 1936년 토성-해주 구간 경의선 철도 연결을 계기로 교통 중심도시로 급격히 성장했으며, 진남포와 달리 부동항인 해주는 쌀 이출 도시, 병참기지 도시, 시멘트 공장, 기계제작 공장 건설 등을 통한 공업화 도시로 발전했다.³⁾

해주시는 현재 북한 정권과 미래 한반도 국토 개발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38선 바로 북쪽에 위치해 광복 이후 한때 불법 월남과 월북, 밀거래가 성행한 도시로 해방과 분단 직후 상거래와 범죄 발생이 증가⁴⁾하기도 했던 해주시는 한국전

〈그림 1〉 1939년 ‘해주시가지계획 평면도’



출처: 서일수(2014) 179쪽 재 인용.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1939. 『해주 시가지계획 구역 가로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 300~301쪽.

1) DPRK.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ormels, Rainer, 2014. North Korea's Cities. Jimoondang.
2)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 『조선향토대백과 8: 황해남도(1)』 (사)평화문제연구소. 62쪽.
3) 서일수. 2014. “1930년대 海州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식민 권력’” 한국역사연구 제167권. 168-173쪽.
4) 박소영. 2017. “해방과 분단 직후 일사의 변동과 새로운 범죄의 발생: 황해도 해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3권 2호. 75-103.

쟁 이후에도 북한 정권에게 교통, 물류, 공업, 군사, 행정 중심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지역 서해안의 유일한 부동항인 해주항은 시멘트, 광석을 주로 취급하며 240만 톤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서해지역에서 남포(북한 전체 항구 무역량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거래(9.8%)가 이루어지고 있다.⁵⁾ 해주시는 ‘통일시대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11개 중 하나로 ‘개성-해주’권 개발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⁶⁾ 2000년 전후 북한 경제특구 협상 과정에서 남측 경험사업 주체인 현대가 ‘경제특구 후보지’로 강력히 선호의사를 밝힌 지역이기도 하다.⁷⁾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해주시는 남한과 근접한 황해도 지방의 오랜 행정도시이자 미래 한반도 서해 물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해주시에 대한 연구와 기사 등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재 해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이 글은 해주시 내부 공간과 상황을 밝혀내고 이해를 돕고자 위성자료(remote sensing data)와 위성사진(satellite imagery)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준비

필자는 해주의 도시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남포시 행정구역 206km² 전체를 56개 ‘동’ 단위로 분리했다.⁸⁾ ‘동’ 단위 지리정보는 무료 제공 프로그램인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벡터 형식의 디지털 자료(shape file)로 생성 및 분석했다. 해주시 분석을 위해 구분된 56개 동 단위 분할과 도시 주요시설 위치는 <그림 2>과 같다.

56개로 분할된 지역에 대해 위성자료를 추출했다. 추출한 자료는 인구수, 건물밀도, 야간조도(불빛)이다. 필자는 자료를 추출 후 QGIS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자료를 시각화했다. 이후 해주시 도시 공간과 일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성자료 시간적 변화 분석 및 해주시 일상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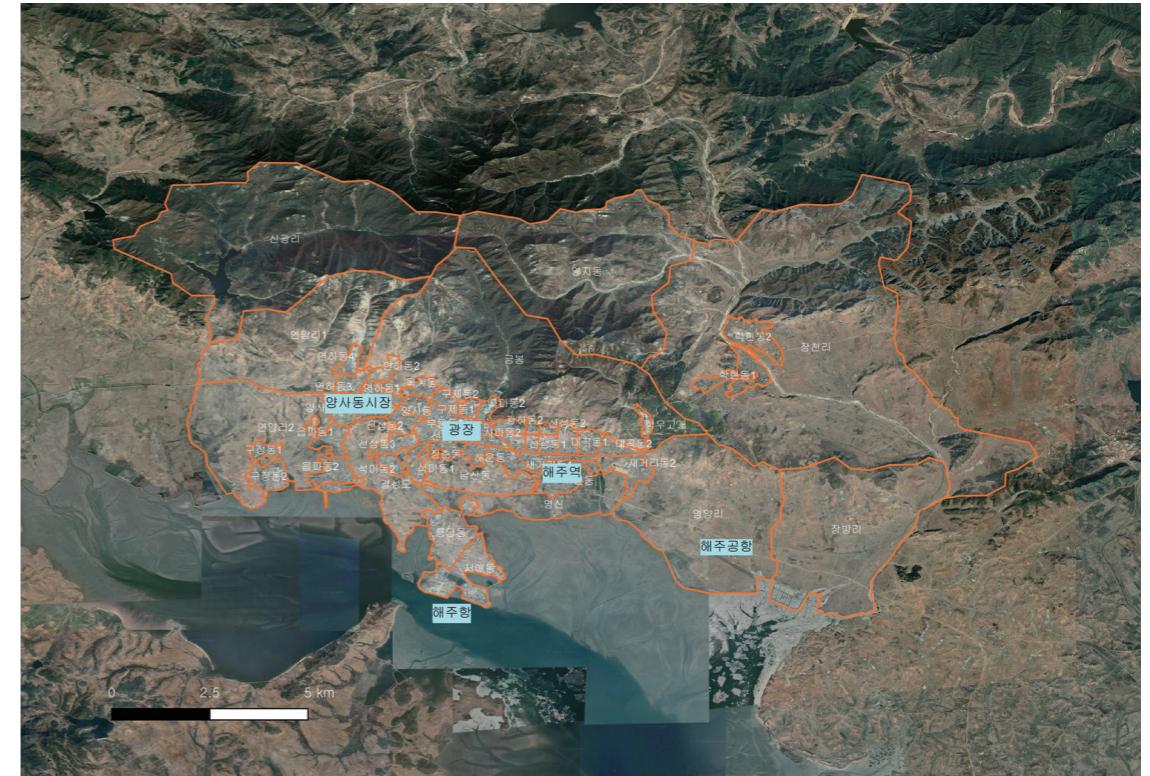
5) 이현주, 서연미, 김민아, 유현아, 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2019.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7쪽.

6)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외. 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국토연구원.

7) 최상권. 2010. “해주경제특구 개방을 통한 서해평화지대 추진” 한국보훈논총 제9권 1호. 179-205.

8) 행정구역상 해주시는 26개 동과 5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 『조선향토대백과 8: 황해남도(I)』 (사)평화문제연구소). 대상 지역은 크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심지역의 경우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실제 ‘동’ 숫자보다 많은 구분을 하였다. 해주시 행정구역에 구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으며, 연구자는 기존 자료와 위성영상을 고려하여 ‘동’을 구분했다.

<그림 2> 해주시 56개 ‘동’ 단위 구역분류와 주요시설 위치



출처: 필자 작성.

한 거의 유일한 논문인 곽영일의 연구 내용을 위성사진(satellite imagery)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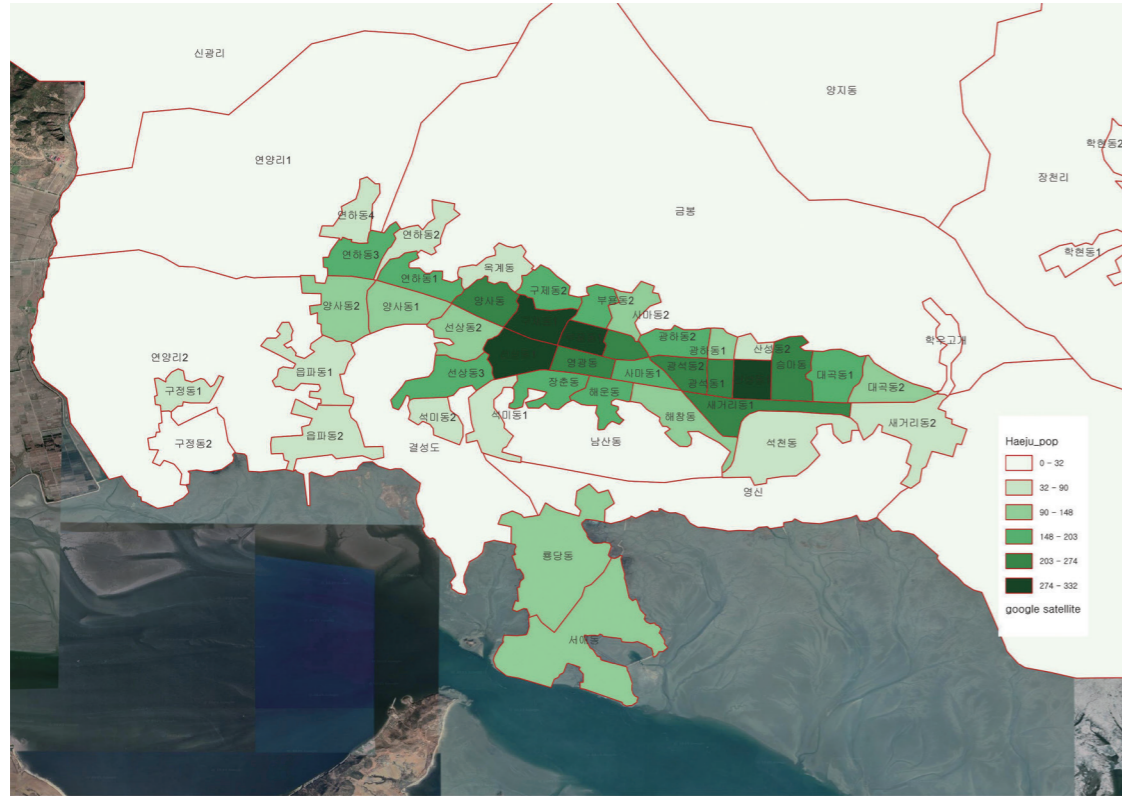
해주 도시공간의 특성

해주 도심은 북쪽으로 946미터 수양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남산을 안고 있으며, 시가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광석천이 흐른다. 남쪽으로 황해에 맞닿아 용당반도가 돌출해 있어 부동항인 해주항이, 도심 서쪽으로는 해주역이 위치하고 있다. 도심은 북쪽 산과 남쪽 해안 사이, 중심을 가르는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해주시를 56개⁹⁾ ‘동’ 단위로 구분해 추출한 위성자료를 분석해 보면 해주 도시공간은 위치에 따라 공간적 특성이 다르다. 먼저 56개 ‘동’별 인구밀

9) 해주시 실제 행정구역은 26동 5리 임을 다시 밝힌다. 56개 동 구분은 자세한 도시 공간 연구를 위해 필자가 임의 구분한 동이다.

〈그림 3〉 해주시 '동'별 인구밀도 (2020년)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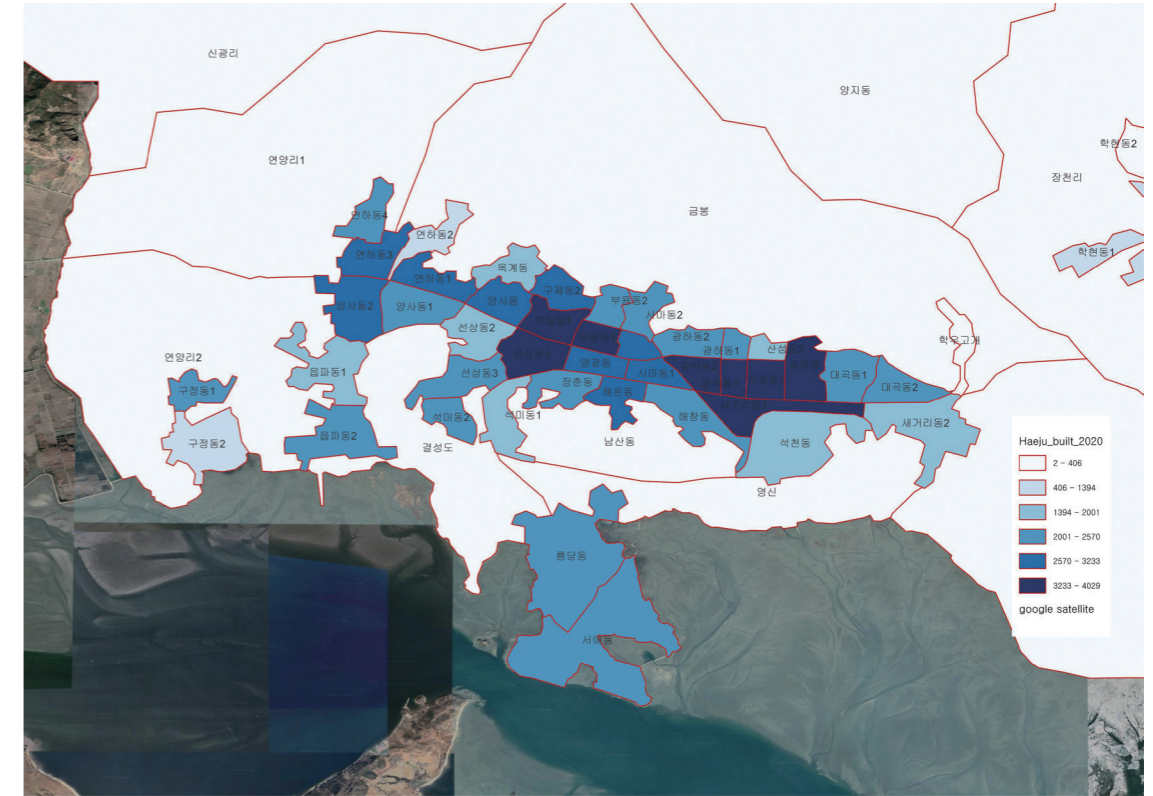
도 분포를 보면,¹⁰⁾ 광석천을 기준으로 동서 중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참조) 광석천 서쪽 도심의 경우 부용동, 선상동, 구제동 인근이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이 지역은 광장이 위치해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밀집할 뿐 아니라 해주시장이 위치해 상행위 등 주민의 도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다. 광석천 동쪽 지역에서는 산성동, 승마동, 새거리동, 광석동 인근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은 남쪽으로 해주역이, 중심 도로 인근으로 '해주의학대학,' '해주공업대학,'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이 위치한 곳이다.

해주시 56개 '동'별 건물밀도¹¹⁾를 2020년 기준 추출해 확인한 결과 건물밀도는 인구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 참조). 인구밀도가 높은 곳

10) 인구수 위성자료는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GHSL -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자료를 해주시 56개 '동'으로 추출했다. (Schiavina M., Freire S., Carioli A., MacManus K. (2023): GHS-POP R2023A - GHS population grid multitemporal (1975-2030),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11) 건물밀도 위성자료는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GHSL -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의 GHS-BUILT-S 자료를 해주시 56개 '동'으로 추출했다.

〈그림 4〉 해주시 '동'별 건물밀도 (2020년)



출처: 필자 작성.

이 건물밀도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동' 별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항구 인근, 도심 동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밀도 대비 건물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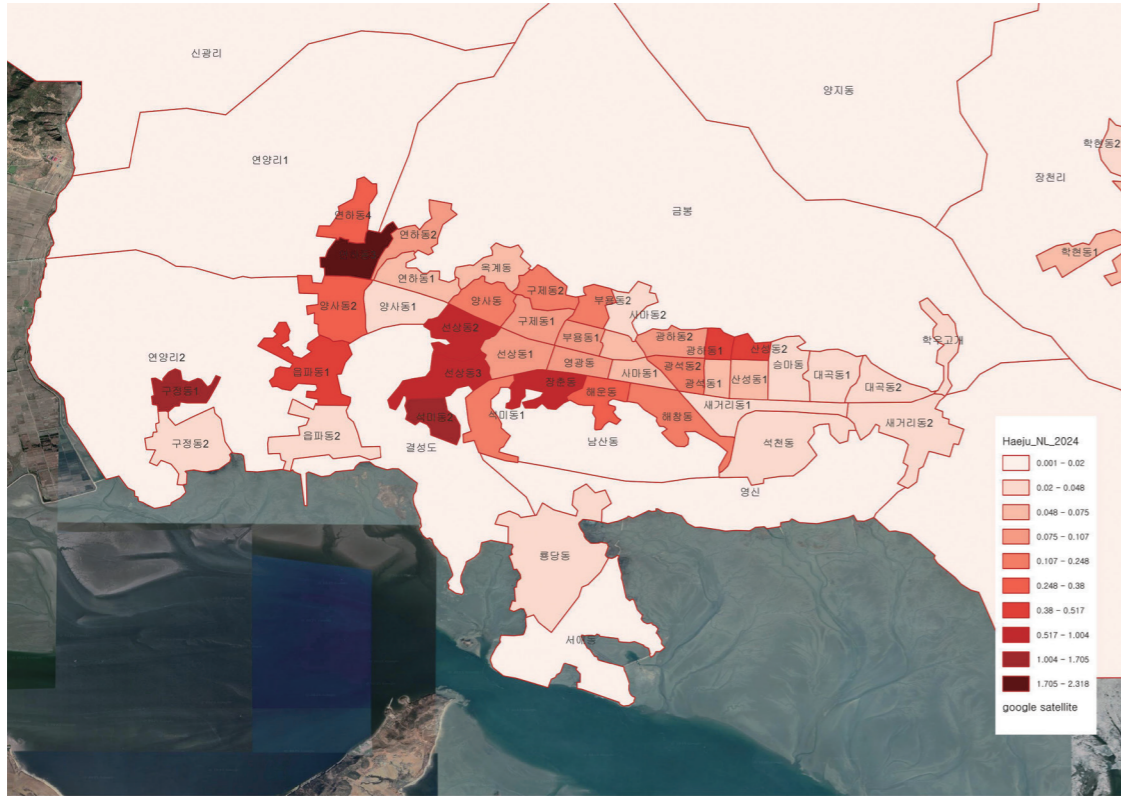
해주시 56개 '동'별 야간조도(밤의 불빛)는 EOG(Earth Observation Group)에서 제공하는 VIIRS(resolution 463.83m) 자료를 추출했다. 야간조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¹²⁾, 북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과 야간시간 활동¹³⁾, 빈곤 지역연구¹⁴⁾에 사용된 변수이다. 해주시의 도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야간조도를 분석한 결

12) Putri, S. R., Wijayanto, A. W. & Pramana, S. (2023). Multi-source satellite imagery and point of interest data for poverty mapping in east Java, Indonesia: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Remote Sensing Applications: Society & Environment 29: 1 - 20.

13) Kim, K. (2022). The North Korean economy seen by satellite: estimates of national performance, regional gaps based on nighttime light. Journal of Asian Economics 78, 1 - 19.

14) Lee, Si-Hyo., Suh, Moon-Gi., Kim, Sung-Bae and Baek, Myeongsook. (2024). Urban poverty patterns in Pyongyang (North Korea): A deep-learning-based spatial analysis. Cities 151. <https://doi.org/10.1016/j.cities.2024.105109>

〈그림 5〉해주시 '동'별 야간조도 분포 (2024년)



출처: 필자 작성.

과는 〈그림 5〉와 같다. 야간조도가 높게 나타난 곳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도심 남쪽 장춘동, 선상동, 석미동, 도심 서쪽 연하동, 양사동, 도심 동쪽 광하동, 산성동 인근이었다. 일반적으로 야간조도는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해주시의 경우 오히려 도시 외곽에 야간조도가 높게 나타나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해주시 저녁 시간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에서 경제활동이 더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해주 시장활동과 공간변화

해주의 구체적인 도시공간과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광영일의 논문에 나타난 해주 주민들의 시장활동과¹⁵⁾ 위성사진에 나타난 도시변화를 확인하였다. 광

15) 광영일, 2012.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일은 본 논문에서 해산시장의 도입과 발전, 시장활동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양사동 시장을 모체로 광석시장(해주경기장 옆)과 동해주시장(대곡동)이 새로 생겨났으며, 2000년을 전후해서는 해산물 외화별이 회사, 개인 상점 등이 들어서고 도심 광장 외화상점과 호텔 주변으로 외환거래상들이 활발히 활동했다.

“(해주시) 국가건물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에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이 허용되었다. 해주양사식료상점은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당구장이 되었고,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해주위원회 건물 1층은 개인 PC방으로, 국영식당 20곳은 맥줏집으로 변경되었다. 한 방에 30여 대의 PC를 설치하고 ‘서든 어택’(sudden attack)이나 ‘도강작전전투’와 같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이 이용되었는데, 사용료는 1시간당 북한돈 700원(한국돈 250원)이었다..... 해주시 중심가인 광장과 양사동의 수양거리, 광하동, 광석동의 국영식당 30여 개 중 27개가 개인이 영업하는 식당으로 전락했고 매달 임대료를 임대한 기업에 납부해야 했다. (광영일, 2012. 78쪽)”


시장도입 이후 해주시 '동'별 건물밀도 변화를 확인해 보면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광석천 서쪽으로는 광장 남쪽인 영광동, 장춘동과 서북쪽 돌가공 공장이 있는 연하동, 해안가 읍파동이, 광석천 동쪽으로는 도심과 농경지가 만나는 새거리동 동쪽 끝 지역이 건물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해당 지역 중 특히 급격한 건설이 일어난 곳으로 도심 동쪽 끝 지역을 위

〈그림 6〉해주 도심 동쪽 신축건물 (좌 2015년, 우 2017년 위성사진년)



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2015년까지 농경지였던 곳에 1년 만에 건물이 들어서고, 다음 해에는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했다. 고급 학교시설로 파악되는 이 건설 활동을 볼 때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장활동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도시 발전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며

해주시는 오래된 역사 도시이자 한국과 인접한 황해남도의 주요 도시로 교통과 물류, 공업활동의 주요한 도시이다. 최상권(2010)의 언급처럼 미래 남북 경협과 통일 시기 해주시는 '개성-해주-남포-인천'을 잇는 '서해안 평화경제 사업벨트'의 주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해주시를 향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복음의 닫힌 문이 열릴(Open Door)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황해남도 중심 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1. 지리 및 인구

해주시는 북한 서해안에 위치한 해주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주변에는 넓은 해안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도시는 위도 38.04도, 경도 125.71도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청단군, 서쪽으로는 벽성군, 북쪽으로는 신원군과 인접해 있다. 해주시의 북쪽에는 해발 947m의 수양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산이 위치하여 시가지를 감싸고 있다. 또한, 해주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광석천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남쪽 해주만에는 룡당반도가 길게 뻗어 있어 지형적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해주시는 주민 수가 27만 3,300명(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27개 도시 중 인구순에서 13위로 알려져 있다. 자강도 소재지인 강계시(25만 1971명)나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19만 2,680명)보다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이



북한 해주시 지리 <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q>

다. 북한의 도시 규모 분류에서 해주시는 특대도시 다음 단계인 대도시에 속한다.¹⁾

해주시의 전체 면적은 약 206.93km²로, 북한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면적 기준으로 27개 시급 도시 중 22위로 작다. 해주시의 대부분 지역은 해발 200m 미만의 평야와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도시 전체 면적의 약 90% 이상이 낮은 평야 지역이며,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에 이른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해주시가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구조를 가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2. 행정 및 산업



중국인 관광객이 찍은 해주시내의 모습

해주시는 황해남도 도급 당 기관과 행정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도 내 행정 및 치안 전반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해주시는 26개의 동과 5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주시는 중부에 소재한 부용동, 사미동, 영광동, 해운동을 중심으로 동 행정 지역이 전개

되어 있다. 북쪽 지역에는 옥계동과 구제동이 있으며 동북쪽 지역에는 학현동, 양지동, 대곡동, 산성동, 승마동, 광하동, 광석동이, 서쪽 지역에는 양사동, 창춘동, 형광동, 연하동이 있으며 남쪽 지역에는 남산동, 룡당동, 서애동이 있다. 동남쪽 지역에는 해청동, 석천동, 새거리동이 있으며 서남쪽 지역에는 장춘동, 읍파동, 선산동, 석미동, 결성동이 있다. 그리고 서북쪽 지역에는 연하동과 구제동이 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해주시의 행정지역은 서쪽지역과 동쪽지역으로 구분된다. 북부 수양산 남쪽 경사면에서 시작하여 해주 시내를 가로질러 서해바다로 흘러드는 광석천을 기준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다. 광석천과 인접한 서쪽 지역에는 사미동, 해청동을 비롯한 영광동, 장춘동, 선산동, 구제동 등이, 동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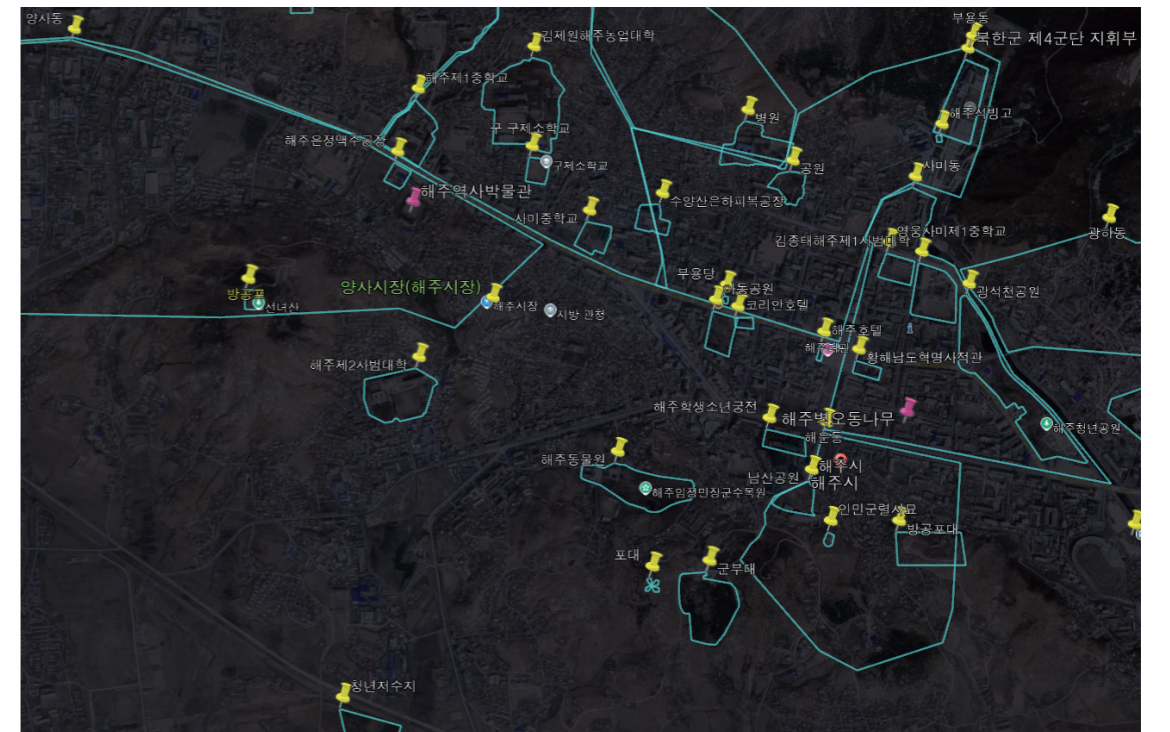
역에는 광하동과 광석동, 새거리동을 비롯한 산선동, 대곡동, 승마동 등이 소재해 있다.

해주시는 한국과 서해상으로 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이나 기업체보다는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중앙공업 산하 공장, 기업소가 적지만, 비교적 다양한 소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운영되고 있다. 공장, 기업소들은 주로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피복공장이나 식품공장이 시안에 위치해 있다. 해주시의 주요 산업 시설로는 새거리동에 위치한 해주화력발전소, 승마동에 자리한 해주 종이연합기업소, 서애동의 해주제련연합기업소, 그리고 룡당동에 있는 해주시 멘트공장, 석천동에 있는 해주연결농기계공장, 읍파동에 있는 해주판유리공장 과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새거리동에 있는 해주구두공장 등을 들 수 있다.

3. 교통 및 물류

해주시는 황해남도의 주요 교통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서울과의 직선 거리는 약 120km, 철도로는 약 160km 떨어져 있다. 이 도시는 주요 철도 노선과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이 뛰어난 편이다. 새거

서해주의 주요 기관(출처: 필자가 구성)



1) 조현숙, “중소도시의 계획적 형성은 도시에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형성 방식” 『경제연구』, 1호(2004), p. 37.

리동에 있는 해주역을 통해 황해남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황해청년선이나 황해남도 동부 지역과 연결된 배천선, 황해남도 서부 지역과 연결된 웅진선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황해청년선은 사리원청년역과 해주청년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80km이다. 도로망 역시 주변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해주~사리원, 그리고 해주~개성 간 1급 도로와 황해남도 내의 연안·배천을 지나 개성으로 통하는 도로와 재령을 지나 사리원·신천·안악으로 통하는 2급 도로가 있다. 이러한 도로망을 통해 해주시는 개성, 사리원, 신천, 안악 등과 직접 연결되며, 장연, 송화, 웅진, 금천, 남천 등 인근 지역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해주시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서해동에 위치한 해주항이 이 지역의 주요 해상 물류 거점으로 되고 있다. 해주항은 북한에서 서해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이며, 남한의 인천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수 차이가 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7,000톤 미만의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며, 수심은 약 10m 내외로 제한적이다. 주요 선적 화물은 시멘트이며, 연간 하역 능력은 약 240만 톤에 이른다.

항공교통의 경우 해주시 동남부 해안에 해주비행장이 존재하지만, 이곳은 군사 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의 운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길이가 2,000m인 활주로 1곳이 있는데, 최근에 포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시장

해주시는 황해남도의 도 소재지여서 다양한 장사품과 인구가 유입되며 따라서 시장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주시는 시장을 관리하는 인력 수에서 전국적으로 2등급에 속한다.²⁾ 현재 해주시에는 4개의 공식 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양사시장, 새거리시장, 서애시장, 학현시장이다. 시장의 위치와 면적, 판매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양사시장은 양사동의 양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1,303㎡이다. 시장의 면적에서 양사시장은 북한에서 2위,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30,887㎡) 다음으로 크다.³⁾ 양사시장은 황해남도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농식료품, 농산물, 공산품, 의류, 가전제품 등이다.

2)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2022, p. 32.

3) 위의 책, p. 39.

양사시장



새거리 시장



서애시장



학현시장



새거리시장은 해주시의 동쪽인 새거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에 확장되어 면적이 11,560㎡로 커졌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시장들보다 의류와 잡화 거래 비중이 크다. 서애시장은 서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235㎡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농식료품, 농산물, 간단한 의류와 잡화이다. 학현시장은 학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881㎡이다. 작은 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장이다. 해주시에 소재한 시장들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며 공산품보다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농산품에 대한 북한지역 전반의 수요가 높으나,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이 열악하다.

5. 공공시설

해주시에는 황해남도에서 손꼽히는 교육 및 보건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이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며

조선후기의 황해도는 각종 종교와 사상이 모두 발전을 경험한 지역이다.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율곡 이이가 1578년 해주 석담에 설립한 서원 은병정사(隱屏精舍)는 이후 이이를 따르는 문인들에 의해 소현서원(紹賢書院)으로 발전하여 조선 유교의 성지 중 하나가 되었다. 동학 역시 황해도에서 교세를 크게 떨쳐 동학군이 도 관아를 점령하여 조선에서 유일하게 도 관아에 자치정부 설립을 시도하였다. 황해도의 천주교는 1896년 빌헬름 신부가 부임하며 교세를 확장하여 1996년 600명에서 1902년에는 7,00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1902년 조선천주교 전체 영세자 5,870명 가운데 황해도의 영세자 수는 2,360명이었다. 황해도는 조선 개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조선에 개신교가 전래되기 전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토머스(Robert Jermain Thomas) 등이 황해도 도서지역에 머물렀으며 조선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도 황해도 장연군에 세워졌다. 1902년에는 황해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천주교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일반 주민들과 교세가 성장하는 개신교인들이 대항하여 발생한 해서교안사건이 황해도에서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각 사상과 종교의 경연장과도 같은 황해도에 개신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발전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1909년 선교지 분할 과정에서 황해도 남부가 미감리회의 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과 그 이후 감리교회의 성장과정을 개관하며 해주의 교회관련 역사를 정리할 것이다.

1. 조선교회의 시작 소래교회

황해도는 한반도에서 개신교와 가장 먼저 접촉한 지역이자 첫 교회가 생긴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황해도는 한국교회의 요람이라 불린다. 조선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는 중국에 주재하던 중 백령도, 장산곶 등을 거쳐 충청도 고대도에 머물다 중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1866년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에서 조선선교를 준비하던 중 스코틀랜드성서공회 권서 자격으로 한문성경을 갖고 내한하여 1865년 9월부터 12월 까지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昌麟島)에 머물며 조선 말을 배우고 성경을 배포했다고 전해진다.

황해남도 용연군(현재 지명 기준)은 한국의 첫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다. 의주 출신 상

인 서상륜은 1879년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한 후 고향 의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다. 그는 고향에서 박해를 받아 1883년(학자에 따라 1884년으로 보기도 함) 그의 외가가 있는 장연(현재의 용연)의 송천(松川, 소래라고도 함)마을로 이주하여 교회를 세웠다. 서상륜은 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였고 1884년 로스가 선편으로 보낸 6천 권의 성경을 독일인 뮐렌돌프(Paul G. Mollendorf)로부터 인수하여 전도에 활용하였다. 서상륜의 노력을 통해 소래마을에 거주하는 58세대 중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해진다.¹⁾ 1884년 로스 선교사가 봉천(현재의 요녕성 심양)에 머무르며 쓴 선교보고에 의하면 “서씨(서상륜)가 2년 동안 애써 일한 보람이 있어,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70명 이상이며, …, 서울 서쪽에 위치한 읍촌(邑村)에 교당(教堂)이라는 처소 하나를 개설하였고, 그곳에 18명의 신자가 있고, 또 서울 남쪽에 위치한 읍촌에는 세례 청원자가 20명 이상이 있다.”²⁾ 고 적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조선의 선교는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입국한 서상륜이 자리를 잡고 사역을 시작한 소래로부터 시작하여 서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886년 서상륜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 소래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선교사들의 지방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서상륜은 1887년 1월 서울로 3명



소래교회, 의주 출신 상인 서상륜은 1879년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한 후 고향 의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다. 그는 고향에서 박해를 받아 1883년(학자에 따라 1884년으로 보기도 함) 그의 외가가 있는 장연(현재의 용연)의 송천(松川, 소래라고도 함)마을로 이주하여 교회를 세웠다.

1)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p. 47, 48을 박응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 설립 배경과 연도 그리고 그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성경과신학』 107호 (2023) p.139에서 재인용.

2)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Foreign and Bible Society for 1885, pp. 215, 216을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p. 58에서 재인용.



소래교회의 개척자 서상륜

의 교인들을 데리고 와 세례를 받게 한다.

소래교회가 개척되던 1883년 소래마을이 속한 장연의 명칭은 장연도호부(長淵都護府) 서대방(西大坊)이었다. 1895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소래마을은 장연군 대구면(大救面)에 속하게 되었다. 속설에 의하면 1895년 서대방 향장이던 김윤오의 가문이 신앙생활을 하며 개화운동에 선봉에 섰으며 그가 향장으로 있으며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명에 영향을 끼쳐 ‘큰 구원’ 이

라는 뜻의 대구면(大救面)으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³⁾

2. 감리교의 해주선교와 선교지 분할

조선선교 초기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던 선교부는 언더우드를 파송한 미북장로회와 아펜젤러를 파송한 미감리회였으며 두 선교회 모두 서울과 평양에 선교센터를 두고 있었다. 황해도지역은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자연스레 양 선교부의 서울, 평양 주재 선교사들에 의해 순회전도가 이루어졌다. 서부 해안가에 대하여는 미 감리회 제물포 선교부, 황해도 동남부 개성 주변은 개성에 지부를 둔 남감리회 개성선교부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졌다.

황해도가 선교기지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897년부터이다. 1892년 미감리회의 존스(G. H. Jones) 선교사가 인천내리교회의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안 선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존스는 1897년부터 황해도 연안과 그 주변지역에 선교기지를 확보한다. 미감리회 연안 선교기지에 조선인 조사가 기거하며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1900년에는 연안, 백천, 평산, 해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순회사역을 진행했다. 해주지방 교회의 통계도 이 시기부터 보고된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8년 이미 해주와 소래를 중심으로 황해도 서부지역에는 42개의 예배 처소, 14개의 예배당이 있었고 6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으며, 350명 이상의 학습교인이 있었다.⁴⁾

1901년에는 5월 케이블(Cable Elmer Mannasseh) 선교사가 황해도로 파송을 받아 김기범 전도사와 함께 순회전도에 나서 1년 동안 9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입교인 100명, 학습인 415명의 신자를 얻었다.⁵⁾ 케이블 선교사는 1901년 황해도 해안 선교구역을 ‘해주순회구역’이라 명명했다. 이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연안의 이름을 따지 않고 ‘해주순회구역’이라 명명한 이유는 황해도 행정의 중심지인 해주를 황해도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존스와 케이블이 황해도 선교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황해도 해안가가 인천에서 바닷길로 가까웠으며 연안에서의 개척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도 있었다. 그들은 1900년을 전후하여 제물포 교회 사역자 중 가장 헌신적이었던 홍순탁, 이명숙, 고치일, 하춘택 등을 연안으로 파송했다. 홍순탁은 1900년을 전후하여, 하춘택은 1902년 해주로 이사하여 사역에 전념했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바로 해주읍교회(이후 남본정교회로 이름을 바꿈)이다.

미감리회는 1901년에 들어 조선선교회 산하 지방의 구조를 갖춘다. 조선남구역(South Korea district, 서울 중심), 조선서구역(West Korea district, 인천 중심), 조선북구역(North Korea district, 평양 중심)의 지방조직을 갖추고 각 구역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황해도는 세 개 지방회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신계 주변의 황해도 북부는 조선북구역 관할에, 해주를 포함한 황해도 해안가 지역은 조선서구역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 해주는 연안, 배천, 평산과 묶여 서구역 산하 연안구역을 형성했다.

연안구역의 중심교회는 연안읍교회였다. 연안읍교회는 조선의 감리교 농촌선교에서 가장 큰 사역의 성과를 보인 교회였다. 연안읍교회 김춘택 전도사는 연안지역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하였고 1901년 기준 연안구역은 9개 교회, 학습인 435인, 입교인 32인, 주일학교 6곳을 보유한 교세로 성장하였다. 황해지방회는 1902년 인천 영종도 출신의 하춘택을 전도사로 임명하여 성문 안 전망 좋은 곳에 해주읍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해주와 주변지역 선교를 맡도록 하였다.⁶⁾ 케이블 선교사는 하춘택에 대해 평가하기를 “교회를 신실하게 받들었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곳에 들어가 선교의 터전을 닦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언제나 조용하고 품위 있는 기풍을 유지했는데, 이것이 그를



1901년 황해도를 개척한 케이블(Cable Elmer Mannasseh) 선교사가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

3) 장철수, 『소래교회사』 (서울: 북랩, 2022) pp. 21-23.

4)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226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p. 136에서 재인용.

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사전 p.1048.

6)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C. 1902 통계표를 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p. 147에서 재인용.

친근하게 만들었다”⁷⁾ 라고 하였다. 감리교신학교 기관지 신학월보는 1903년 1월 해주의 교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또한 해주등지에도 교회가 매우 흥왕했는데 읍내에는 전부터 장로교회가 있어 주를 믿는 형제가 몇십명 있으나 우리 미이미(美以美) 감리교회는 아직 없더니 작년부터 전도사 하춘택씨가 비로소 전도했는데 지금 믿는 형제가 남녀 20여인 이온데 이번에 다섯 형제를 세례 주었으니 그곳에 교회가 것처럼 속히 흥왕함을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하춘택께서 이처럼 힘써 전도한 것을 치하하오며...⁸⁾

하춘택에 의해 설립된 해주읍교회는 1902년 서부지방회 황해도 구역에 속했다가 1903년 해주구역으로 독립했다.

1903년 제물포 지부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인으로 평가받던 복정채 전도사가 해주지역 순회전도사로 파견되어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남부지역은 활기를 띄게 된다. 복정채는 제물포출신으로 나주부 부주사를 지냈으며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국민계몽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1897년 고향 인천에서 존스에게 세례를 받은 후 1898년 권사가 되었으며 1901년 전도사로 임명되었고 인천의 두 번째 교회인 만수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후 해주선교부로 파송된 것이다. 미국 감리회는 1904년 크리철티(C. Critchete)를 해주에 파송하여 정식으로 선교부를 개설했다. 이때부터 해주를 중심으로 연안, 웅진, 강녕, 연백 등에 대한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크리철티는 1905년 보고서 선교지의 확장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45마일, 남서쪽으로 45마일, 북쪽과 서쪽으로 각각 39마일 떨어진 곳에 가장 먼 그룹이 있다. ... 선교사 한 사람이 이 넓은 지역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역부족이다.”⁹⁾ 1905년 감리회 선교부는 그동안 조선서구역에 속했던 황해도 서남부를 조선북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황해도 교회 전체가 조선북구역의 관할에 속하게 되고 크리철티 선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1905년에 김여흥 전도사가 해주읍교회에 2대 교역자로 부임한 후 1906년 해주읍교회의 교인은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교회는 교회부설 매일학교

의 건물을 세우고 부설서점을 개설하였다. 1907년부터는 영어 야학을 개설하였다. 1905년 기준 해주지역의 교세는 16개 교회 선교사 2인, 현지인 목회자 1인, 성도수 1,783명, 주일학교 학생 930명의 규모로 성장한다.¹⁰⁾ 이 중 성도수는 미감리회 산하 도시단위 구역 중 평양, 서울에 이은 세 번째 규모였다. 해주의 감리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1908년이었다. 1908년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작년에 2,103명을 보고하였는데, 올해에는 3,559명을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는 68%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¹¹⁾

1897년 존슨에 의해 감리교의 황해도 남부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이전 이미 장로교 선교사와 조사들에 의해 황해도 남부지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1904년 장로회의 황해도선교부는 재령에 들어서고, 비슷한 시기 감리회의 해주선교부가 자리를 잡으며 황해도 교회는 북부의 장로회 강세구역과 남부의 감리교 강세구역으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는 재령강과 예성강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 황해도는 중부에 가로놓인 멸약산맥과 언진산맥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황해도의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가 발달하였다. 그럼에도 해주와 평산 등 남부지역에도 장로교회가 있었으며 신천, 봉산, 서흥에도 소수의 감리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미감리회와 북장로교는 황해도 이외에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등의 지역에서 선교지가 중첩된 지역이 있었다. 이에 양 교단은 선교지 중첩을 막고 효율적 선교를 위해 1905년부터 본격적인 선교지 조정협상을 시작하였고 양 선교부의 협상은 1909년에 들어서 급물살을 탔다. 1909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양측의 대표가 서울 청년회관에 모여 이제까지 끌어오던 선교구역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양 교단이 이미 자리를 잡은 서울, 평양, 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첩 구역에 대해 기존의 교세를 근



1909년 당시 조선 선교지 분담 현황

7) The Korea Mission Field, 1906. 3, p. 82.

8) 장원근, “황해도교회 진보함” 신학월보 1903. 1 을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p. 301, 302에서 재인용.

9)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87-1910, p. 236.

10)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서울:KMC, 2017) p. 65.

11) 신광철, “황해도 지역 교회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 3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p.15.

거로 하여 구역을 나눴다. 당시의 협상 결과를 미 감리교의 신학월보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황해도는 웅진과 강령과 해주와 백천과 신계지경이며 평산과 봉산과 서흥은 철로동편으로 부속하게 하고 수안은 절반을 속하게 하였으며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였다. 평남은 양덕과 함종과 삼화요 성천강은 삼분의 일이요 개천과 순천과 강서는 절반으로 하고 은산은 삼분의 일이요 용강은 벌써 교회 설립하던 대로 하게 하고 평양지경을 사분의 일이요 강동은 벌써 전도하던 대로 하고 맹산은 절반을 속하게 하고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며 평북은 영변, 태천, 운산이요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였다.¹²⁾

황해도의 교계예양 (선교지분할)

북장로회	미감리회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재령, 평산,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웅진, 강령, 해주, 연안, 배천, 평산, 신계,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당시 황해도지역 선교지 예양은 장로교 측의 상당한 양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장로교는 43개에 이르는 교회와 공동체, 460여 명의 세례교인, 2,000여 명의 신자를 감리교에 넘겼으며, 감리교는 200여 명의 신자만이 장로교로 이관되었다.¹³⁾

3. 해주교회의 성장

1900년대 초반 하춘택, 복정채 등 조선인 전도인들에 의해 교세가 성장하기 시작한 해주선교부는 1906년 해주가 평양지방회로 이전이 된 이후 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며 1909년 선교지분할 이후로는 명실공히 미감리회의 지방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1910년 의료선교사 노튼(A. H. Norton)이 구세요양병원을 세우며 해수에 정착하였고, 1911년에는 여성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했다. 이전까지 여성 선교사들은 제물포에 거주하며 해주를 방문하였으나, 숙소문제가 해결되어 여성선교사들도 해수에 거주할 수 있게

12) 신학월보,를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87-1910』 p. 139.에서 재인용.

13)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1884-1934), p. 226을 북한교회사 137에서 재인용

되었다. 1912년에 이르러 해주구역회가 미감리회 조선선교부의 6개 지방회(district) 중 하나로 승격하면서 봉산, 서흥, 수안, 신계 지역을 제외한 황해도 남부지방을 해주지방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해주의 지방회 승격과 더불어 데밍(C. S. Deming)이 해주지방회의 감리사로 부임하여 서울에 머무르며 감리사직을 수행하고 쉰(N. D. Chew) 선교사가 해수에 거주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다. 1913년 그로브(P.H.Grove) 선교사가 해수에 총원된 이후 해주를 동과 서로 나누어 동구역은 쉰, 서구역은 그로브가 담당하였다.¹⁴⁾ 그로브 선교사는 1916년 해주지방회의 감리사로 임명된다. 이전의 데밍, 모리스 등의 선교사들이 서울, 평양에 머물며 교단사역과 감리사직을 병행하였으나 그로브 선교사는 해주 현지 사역자로서 감리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1916년 해수에 전도사로 부임한 류형기는 부임 첫날부터 그로브 선교사로부터 “건강한 청년이 평양에서 해주까지 걸어오지 않고 차를 타고 왔다”고 심하게 야단을 맞고 “앞으로 1년간 걸어 다니며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전한다. 류형기에 의하면 그로브 선교사는 매우 신경질적인 면이 있었으나 똑똑하고 조선말에도 매우 능통한 선교사였다. 그러나 그는 감리교 지도부와 마찰을 빚고 1920년 미국으로 귀국하여 미네소타주로 돌아가 교회를 맡아 목양하며 크게 부흥시켰다. 류형기는 그로브에 대하여 평하기를 “그가 조선에 남았다면 감리교회의 게일박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⁵⁾ 그로브 선교사 시기 해주선교부는 자립을 이루어 간다. 스네이블리(Snavely, Miss Gertrude) 선교사에 따르면 당시 해주에는 13개의 순회구역이 있었는데, 그중 새로 개척된 구역을 제외한 다섯 곳은 전적으로 자립을 이루었으며 30개의 새로운 어린이 주일학교가 조직되었다.¹⁶⁾ 해주지방회가 자립을 이룬 데는 그로브의 십일조 운동이 원인이 되었다. 그로브는 ‘십일조회’를 조직하고 지방회 때 십일조 서약예배를 마련했다. 성도들이 함께 십일조 서약예배를 드리며 서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서약을 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서약의 당사자에게는 증명서를 주었다.¹⁷⁾ 십일조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해주지방회의 성공사례는 감리교의 다른 지방회에도



해주지방회가 자립을 이룬 데는 그로브(P.H.Grove)의 십일조 운동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4) 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pp. 147, 148.

15) 류형기, 은총의 팔십오년 p. 38, 39, “조선의 기일(吉日, James S Gale)” 이란 캐나다선교부 출신으로 조선에서 한영사전 편찬, 다수의 학교설립, YMCA설립 등을 이룬 계일과 같은 큰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16) G. E. Snavely, WFMS Report, 1917을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서울: 신앙과지성사, 1999) p. 256에서 재인용.

17) P. L. Grove, MEKAC Journal, 1917을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p. 256에서 재인용.

영향을 미쳐 감리교와 조선기독교 전체에 십일조 문화를 만들어냈다.

해주선교 초기 추, 그로브와 함께 해주의 교회를 이끈 조선인 전도자는 홍순탁 목사이다. 그는 1900년을 전후하여 해주에 파견되어 해주읍교회 개척에 참여하며 해주 서지방 순회사역을 감당하였고 1906년 해주읍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되었다. 1910년 배천교회에 부임하였으나 1912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1913년 해주읍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당시 보고서는 해주읍교회 예배당 건축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홍목사가 열심히 일한 결과 회당에 매 예배일마다 근 삼백명씩 모임으로 새 회당 짓기를 교우들이 대단히 원하더니 그들의 원대로 금년 봄부터 새 회당 건축하기를 시작함으로 금년 겨울에는 새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¹⁸⁾

해주 교회의 성장에는 사경회 문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907년 당시 평양에서 일어난 말씀사경회를 통한 대부흥의 열기가 해주에도 미쳤다. 당시 상황을 크리켓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평양에 갔던 신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 자기들의 교회와 이웃 교회에까지 부흥의 불길을 붙였다. 2-3일씩 걸리는 부흥회가 열리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자기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공개적으로 통회 자복하여 용서를 구했다. 이 같은 엄청난 고뇌와 갈구와 몸부림은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성령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셨다. 부흥의 불길은 18개 교회를 휩쓸었고, 교인의 3분의 2가 자기 죄를 고백했으며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죄와 그 결과를 분명히 깨달았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고조되고 있다.¹⁹⁾

이후로도 해주에서는 사경회가 교회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당시 조선 각 교회의 사경회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따로 진행되었는데, 1915년부터는 남녀가 함께 참석하는 대규모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신보는 1918년 당시 남녀가 함께 모여 진행된 해주 사경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18) 《제7회 조선미감리회연회일기》를 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서울: 신앙과지성사, 1999) p. 282에서 재인용.

19)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 302.

지난 2월 13일에 황해도 해주읍 남본정예배당에서 지방 대사경회를 개하니 ... 17일 주일에는 각 처 교회마다 그 교회 이름으로 기를 만들어 들고 700-800명 교우가 행렬하여 찬송을 부르며 나팔을 불고 해주성 내외를 순회하다가 남문밖 삼거리에서 모여서 목사 손창현, 오웅천 양씨가 주의 복음을 전한 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개인전도에 힘쓴 후 그날 밤 남본정예배당에서 전도회를 개할 때 참석한 자가 많아서 예배당이 좁을 정도였다.²⁰⁾

1916년 홍순탁 목사가 서울 상동교회로 전임한 후 해주읍교회에는 최성모 목사가 부임한다. 최성모 목사는 서울에서 신민회, YMCA에서 활약하던 인물로 설교를 잘 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1913년 목사안수를 받고 만주, 내몽고, 외몽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1917년 해주읍교회에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일 남본정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고 그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의정여학교는 해주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성도들이 검거되었다. 최성모 목사 역시 구속되어 교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해주의 교세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1920년 3,770명이었던 교인은 1921년 3,215명까지 줄었다. 1922년 3,751명으로 회복하지만 이후로 점점 줄어들어 1930년에는 2,594명까지 줄었다. 그로브에 이어 감리사를 맡게 된 왁스는 1926년 건강 문제로 일시 귀국하였으나 선교비 감축으로 미국에 남아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927년에 김유순 목사가 감리사로 부임한다. 이때부터 해주지방회는 조선인 지도자들이 이끌기 시작한다. 1920년대 교세 감소의 이유를 김유순 감리사는 1920년대 말에 닥친 기근, 선교비 지원의 감축,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들고 있다.²¹⁾ 1920년



최성모 목사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해주에서는 3월 1일 그가 담임하는 남본정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다.

20) 기독교신보, 1918. 3. 13을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p. 258에서 재인용.

21) “Haiju District, Y. S. Kim’s Report,” MEKAC Journal, 1927을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p. 258에서 재인용.



‘조선의 사도바울’로 불린 김창식은 1921년 해주에 부임한다. 당시 해주구세병원에 의사로 있던 아들 김영진과 함께하며 부자가 함께 해주의 교회와 병원을 이끌었다

대 함경도지방의 교회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황해도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1922년에는 해주 동문 밖에 남옥정교회가 설립되었다. 남옥정교회는 1922년 예배당을 건축하고 1923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남옥정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박계화 목사는 교회 설립을 위해 부지로 쓰일 375평의 땅을 기부하였고 담임목사가 되어 13년 간 교회에 헌신한 후 1935년 해주읍교회의 개척자 홍순탁 목사에게 사역을 이임한다.

해주의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김창식이다. 김창식은 1857년 황해도 수안군에서 출생한 인물로 미감리회 올링거(Ohlinger)선교사의 인격에 감동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1892년 윌리엄 홀 선교사와 함께 평양으로 이주하여 전도사

가 되어 교회를 개척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평양의 관료들과 주민들이 차마 외국인 선교사들을 박해할 수 없으므로, 감리교 선교사들에 대한 모든 박해는 김창식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수차례 투옥되고 처형의 고비와 맞아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서양인 선교사들과의 의리를 지켜 ‘조선의 사도바울’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그는 영변지방회, 평양지방회의 감리사를 역임하고 1921년 해주에 부임한다. 김창식은 해주에 부임할 당시 연로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당시 해주구세병원에 의사로 있던 아들 김영진과 함께하며 부자가 함께 해주의 교회와 병원을 이끌었다. 그는 1924년 정년은퇴하여 해주에 머물던 중 1929년 해주에서 소천한다. 김창식의 소천에 대해 셔우드 홀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1929년 1월 9일 저녁 6시 30분. 아버지의 신앙심 깊은 동료였던 김창식 목사가 일흔둘의 나이로 영광스런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식은 1월 25일에 거행되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일관된 삶이었다. 그는 35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큰 딸은 방기순 목사와 결혼했고, 외아들 김영진은 우리 노튼기념병원의 의사이며, 막내딸인 로라 박은 서울에 있는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의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다.²²⁾

22) 셔우드 홀, 『조선회상』 (서울: 좋은씨앗, 2003) p. 463.

4. 해주의 대표기관 해주구세병원과 구세요양병원

1910년 11월 영변에서 활약하던 의료선교사 노튼(A. H. Norton)이 1910년 해주에 부임하여 시약소(施藥所, dispensary)를 설립하였다. 해주에는 이미 도립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약소는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한국 식 가옥 한 채를 구입해 진료소를 마련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한 달에 평균 590명을 돌보아야 했다. 해주시약소는 개원 이래 1913년 5월까지 모두 2만 5000여 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냈다. 1913년 해주읍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후 노튼은 병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1913년 모친 루이자 노튼(Louisa Holmes Norton)여사와 가족들이 모아온 헌금 1만원으로 해주읍 동부5리(동영정) 남산언덕에 병원을 건축하였다. 병원의 이름은 해주구세병원(海州救世病院)으로 명명하였고 영문명은 모친의 이름을 따서 루이자홀즈노튼기념병원(Louisa Holmes Norton Memorial Hospital)으로 지었다. 이후로 해주의 의료 사역은 해주구세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해주구세병원은 설립 후 1년 동안 3,300명을 진료하였고 입원환자는 60명에 달했다. 환자 중 125명이 개종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노튼은 해주 주민들의 보건인식 개선을 위해 『파리와 병의 관계론』, 『해소병 고치는 법』 등의 책을 저술하며 세브란스의전에서도 강의를 했다. 그는 선교지에서 목사안수의 필요성을 느껴 1914년부터 목사견습 과정을 시작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교육을 지속하지 못하여 결국 안수를 받지 못했다. 1921년까지 해주구세병원을 이끈 후 안식년을 다녀와 1923년 세브란스병원 안과과장으로 임지를 옮기게 된다.²³⁾

해주구세병원의 발전을 이끈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셔우드 홀이다. 캐나다 출신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5)과 미국 출신의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은 각각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고, 두 사람은 1892년 6월 조선에서 결혼하여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을 낳았다. 셔우드 홀은 조선에서 태어난 첫 서양인으로 기록되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사역하며 1894년 청일전쟁을 맞게 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소천한다. 윌리엄 홀이 소천한 후 로제타 홀은 미국으로 돌아가 유복녀 둘째를 출산한 후 ‘남



셔우드 홀은 본인 가정의 조선선교 역사와 본인의 해주 사역을 정리하여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다.

2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사전』(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24) pp. 85-87.

편이 못다 이룬 조선 사랑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897년 아들 셔우드, 딸 에디스와 함께 조선 땅에 돌아온다. 그러나 이듬해 세 살 난 딸 '에디스'가 이질로 사망하고 로제타 홀은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평양에 정착한다. 셔우드 홀은 평양 외국인학교의 첫 학생으로 입학하여 1908년 졸업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유니온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 조선의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토론토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하였다. 1922년 의대생이던 마리안 버팀리(Marian Bottomley)와 결혼한 그는 1924년 뉴욕의 롱아일랜드 홀츠빌의 결핵 요양소에서 결핵을 전공한다. 부부는 미국과 유럽의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1926년 내한하여 해주로 파송되었다. 해주에 파송된 셔우드 홀은 해주구세병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하며 해주의창학교의 교장도 겸임하였다. 셔우드 홀이 조선에 파송되던 당시 조선에는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매우 많았다. 셔우드 홀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당시 결핵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20명에 한 사람 꼴인 이 병이 이 나라에서는 5명 가운데 한 사람의 비율로 희생자가 생겼다. 조선이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접어들 무렵인 그 당시 가장 활동력이 강했던 병균은 결핵균이었다.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생겨났던 때였으므로 병균은 고립된 시골에서 큰 도시로 전염되어 나갔다가 다시 시골로 되돌아와 전염되고 있었다.²⁴⁾

로제타 홀의 제자로 미국에 유학하여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온 박에스터를 비롯하여 조선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었다. 셔우드홀은 뉴욕의 결핵요양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대 최고의 결핵 전문가 에드윈 콜브(Edwin Colb)에게 훈련을 받은 결핵 전문가였다. 그가 해주에 결핵전문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셔우드 홀은 황해도지사 박루터(Luther Park), 해주 경찰서장 사사키(佐々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일은 쉽게 진행될 듯 보였다. 그러나 결핵요양병원 설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해주에 결핵전문병원이 설립될 경우 전국의 온갖 폐병 환자들이 해주로 몰려올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주시장이 병원설립을 불허했다. 그러나 셔우드 홀은 끊임없이 관료들을 설득하는 한편 경찰서장 사사키의 조언에 따라

24) 셔우드 홀, 『조선회상』 p. 422

조금 더 외곽의 다른 부지를 찾아 허가를 요청하여 결국 병원 설립을 허가받게 된다. 1928년 해주구세요양병원은 해주의 외곽 왕산리에 건립되었고 요양원 안에 결핵위생학교도 개교되었다.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결핵 환자들이 구세요양병원을 통해 완치되어 퇴원하는 것을 통해 셔우드 홀과 구세요양원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고 1929년 셔우드 홀은 일왕의 감사장을 받게 된다. 결핵요양병원을 결사반대하던 해주시장도 자신의 아들이 구세요양병원을 통해 결핵에서 완치된 후 셔우드 홀과 병원의 후원자를 자처하게 된다. 셔우드 홀의 노력으로 구세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미일관계가 악화되어 셔우드홀은 적성국민으로 분류되었다. 그는 1940년 미국의 간첩 혐의로 일제에 의해 징역 3년 혹은 5천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조선에서 추방된다. 셔우드 홀은 인도로 선교지를 옮긴다. 1941년부터 1963년까지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후 캐나다에서 여생을 보낸 셔우드 홀은 199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별세하여 유언에 따라 부모와 여동생이 묻힌 서울 양화진 묘지에 묻힌다.

해주구세병원과 떼어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은 수산나 엣지(Susannah Edge)이다. 영국출신의 수산나 엣지 선교사는 1912년 해주구세병원의 간호사로 부임했다. 그는 간호부장직을 수행하며 동시에 병원의 경리와 행정까지 맡았다. 1년 간 노턴과 함께 1만 7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간호후보생들을 교육했다. 격무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여학공부와 회복을 위해 1914년 7월 초 잠시 평양으로 철수하였으나 건강이 악화하여 7월 30일 해주로 돌아왔다. 해주로 돌아온 지 사흘만인 8월 4일 아침에 소천하여 구세병원 뒷동산에 안장되었다. 1914년 9월 <The Korea Mission Field>는 그의 별세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녀는 그렇게도 좋아했던 언덕에 잠들었다. 그녀는 바다와 마을 풍경을 모두 볼 수 있는 그곳 언덕에 올라 종종 이런 말을 했다. ‘확실한 소망을 붙잡아야지.’” 한달 후 동료 선교사 발로우(J. Barlow)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옛날 뱀처럼 간호사 엣지도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뱀은 비록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역할에 집중하여 열 배의 결실을 얻었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던 그 모습에 바울이 크게 감동하였다. 엣지 양의 사역도 그와 같았다. 영국에서도 그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주었다. 마지막날에 그들이 부활하여 그녀가 보여준 사랑의 사역들을 증언할 것이다.

해주구세요양병원의 직원들과 셔우드 홀 선교사 부부(가운데)



그런 식으로 그녀는 서울과 해주에서도 버려진 한국인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베풀었다. 그 사랑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한 것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²⁵⁾ 소천한 옛지에 뒤이어 베틀즈(D. M. Battles)가 부임하여 구세병원의 간호부장과 간호사 양성사역을 재개했다.

5. 해방 후 해주의 순교자들과 기독교 관련 사건

해주는 감리교 관할구역으로 감리교 서부연회에 속하였다. 해방 직후 서부연회의 책임자로 추대된 이윤영 목사는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부당수로 활동하던 중 1947년 월남하고 그의 뒤를 이어 서부연회장을 맡은 송정근목사도 1947년 5월 기독교자유당 창당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다.²⁶⁾ 38선 이북 감리교의 지도부 대다수는 체포당하거나 월남을 선택하였고 해방 후 해주 관련 기독교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몇몇 순교자에 대한 소식이 남한에 전해졌는데 북한의 공산화와 6.25전쟁을 거치며 순교한 인물 중 해주와 관련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오현경 목사는 1892년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여 1918년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고 해주 남본정교회에서 시무했다. 3.1운동 당시 해주의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서울에서 잠시 시무한 후 1922년 해주 탁영대교회, 동문교회에서 시무했으며 1928년부터 해주구세병원, 해주광석동교회, 대봉동교회 등에서 사역했다. 6.25 당시 둘째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었으며 본인도 1.4후퇴 직전 공산군에 납치되어 처형당했다.²⁷⁾

장종식 목사는 1894년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했다. 본래 성결교인이었으나 1921년 남감리회로 전입하여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해방 이후 해주지방회가 관할하는 연안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했다.²⁸⁾

조윤여 목사는 1877년 해주 광석동에서 출생하였고 하와이로 이주하여 교사로 사역했다. 귀국 후 원주, 충주, 이천에서 사역하였으며 1926년 해주 동구역장을, 1927년 강녕·용진 구역장을 담당했다. 해방 후 해주지방회 관할 연

안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했다.²⁹⁾

1990년대 후반 북한에 닥친 식량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이 아사하였고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밀려 나왔다. 황해남도도 중국과 거리가 멀었음에도 황해남도 출신 탈북자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들 중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돌아간 이들이 적지 않다. 그중 소수는 선교사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남한의 선교사로부터 양육을 받고 돌아가 황해남도에서 교회를 이루던 성도들의 발각 소식이 선교현장에 전해지기도 했다.

나가며

황해도는 조선시대부터 각종 사상과 종교가 발달한 지역으로, 조선에서 개신교를 가장 먼저 접한 지역이다. 장연에는 한반도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졌으며 황해도의 도청 소재지인 해주는 서울, 제물포, 평양에 주재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다. 그중 미감리회 전도인 홍순탁, 이명숙, 고치일, 하춘택의 노력으로 해주의 감리교회가 부흥하여 황해도 감리교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노튼, 수산나 등의 의료 선교사들은 해주구세병원을 설립하였고,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자 선교사 자녀인 셔우드 홀이 조선에 돌아와 세운 구세요양병원은 이전까지 중병으로 여겨지던 결핵의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다. 조선인 환자들을 돌보다 순직한 수산나 옛지 선교사의 시신은 해주구세병원 뒷산에 묻혔고, 홀 선교사 가족은 3대가 함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매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말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고 해방 후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교회는 문을 닫고 수많은 목사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조선인 전도자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된 땅, 교회와 선교병원을 통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치유된 땅, 공산화 이후 전쟁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한 땅 해주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2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사전』 p.841.

26)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 pp. 349, 350

27)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 738.

28)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 747.

29)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 756.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원장)

통일이 되면, 또는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있었던 곳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곳들’이라고 하였다. 교회가 있었던 곳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 교회의 존재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는 그 부근에 여기는 어느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임을 알리는 조그만 표지석을 하나씩 세울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 주소를 가지고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다. 북한은 행정구역 변화가 심하고 주소의 근본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북녘교회들의 존재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미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회가 있었던 곳들 찾아가기의 본보기로 해주의 경우를 제시하려고 한다. 해주는 교회가 유난히 많았던 곳이고 행정구역의 변화가 특히 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의 행정구역, 이렇게 변했다

해주는 예전부터 황해도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황해도’라는 이름이 황주에서 ‘황’을 따고, 해주에서 ‘해’를 따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북한은 1954년 10월, 황해도를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로 나누었는데 해주는 황해남도의 도 소재지가 되었다. 남한의 ‘도청소재지’를 북한에서는 ‘도 소재지’라고 부르는데 황해북도의 도 소재지는 사리원시로 정해졌다.

문제가 하나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북쪽이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쪽이 평안남도, 함경남도인데 황해도도 그렇지가 않다. 황해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동서로 나누어졌다. 동쪽이 황해북도, 서쪽이 황해남도가 되었다. 그래서 ‘가만, 이곳이 황해북도에 속해 있나? 황해남도인가?’를 파악하는데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황해남도에는 1시 19군이 속해 있는데 19군의 이름은 강령, 과일, 룡연, 배천, 벽성, 봉천, 삼천, 송화, 신원, 신천, 안악, 연안, 웅진, 은률, 은천, 장연, 재령, 청단, 태탄이다. ‘어, 낯선 이름들이 있네!’ 하실 것이다. 북한은 1952년 12월 22일, 행정구역을 크게 뜯어고쳤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군면리 대폐합’이라고 부른다. 이때 면을 없애고, 1만 120개였던 리(里)를 3,658개로 폐합했고, 98개이던 군은 168개로 늘었다. 앞의 19개 군들 가운데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의 대부분 이때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북한은 인구가 적으니까 지역대표제를 내세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

황해남도는 남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강화의 교동도에서는 황해남도 연안군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감리교회에서 교동도 지식리에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바다 건너 언덕에 써놓은 선전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

연안을 비롯해서 강령, 배천, 웅진, 청단은 38선 이남으로 6·25 전쟁 이전까지는 남한 땅이었다. 6·25 전쟁을 통해 주인이 바뀐 지역을 남한은 ‘수복지구’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신해방지구’라고 부른다.

해주를 고구려 때는 내미홀(內米忽)이라고 했고 신라 때는 폭지군(瀑池郡)이라고 했는데 고려 태조가 이곳을 와 보고는 남쪽으로 큰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니 해주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오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해주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이곳의 용당포(龍塘浦)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여러 종류가 발굴되었다. 용당포는 분단 이후 공산정권의 폭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오는 월남민들이 숨을 죽이며 배에 오르던 탈출구였다.

통일선교 사역의 일선에서 일할 때 필자는 북한방송을 많이 청취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북한에서 나온 신문이나 책들을 보려면 ‘불온간행물 취급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신청할 때 불온간행물의 범위에 방송청취도 넣었다. ‘불온간행물’을 지금은 ‘특수간행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방송을 들을 때 일기예보를 빼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현장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를 들 때마다 ‘아. 해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네!’ 하곤 했다. 기후가 참 온화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푸근해지곤 했다.

해주에는 공업대학, 교원대학, 의학대학 등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있다. 북한의 교육기관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주에는 김제원(金濟元)대학, 조옥희(趙玉姬)해주교원대학, 김종태(金鍾泰)대학도 있다.

해주는 해방 직후 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町)’이 행정구역의 기본 단위였다. 해방이 되면서 정을 동(洞)이나 리(里)로 개편했는데 이에 따라 해주의 동리들은 광석리(廣石里), 양사리(養士里), 부용리(芙蓉里), 이런 이름들을 갖게 되었다.

지금 해주는 다음 26동 5리로 구성되어 있다.

결성동(예전 결성리와 성현리)/광석동/구제동/남산동(예전 왕신동)/대곡동(예전 승마동의 일부)/룡당동/부용동(예전 본정과 백림동)/사미동/새거리동(예전 청풍동)/서애동(용당리 서쪽)/석미동(예전 선상동이구)/석천동(예전 석계리와 청풍리)/선상동(예전 선상동일구)/승마동(예전 청풍리 일부)/양사동/양지동(예전 학현동의 일부)/연하동(예전 연양리)/영광동(예전 태봉동을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진 곳이라 하여 개명)/옥계동/읍파동/장춘동(예전 서영정)/학현동/해운동(예전 과역정)/해청동(예전 해운동이구)/신광리/연양리/영양리/작천리/장방리

해주의 교회들

앞에서 말했지만 해주에는 교회들이 참 많았다. 1938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장로교회는 황해노회에 속한 교회가 다섯 개가 있었고, 감리교회는 서부연회 해주지방회에 속한 21개의 교회가 있었고, 성결교회가 2개 있었으며 구세군 영문이 10개, 성공회가 2개 있었다. 이것은 일차자료를 통해 확인한 숫자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출처: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편집자 작성

장로교회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선교구역 분할 협정을 맺을 때 해주는 감리교 선교구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용한 일차자료는 장로교는 27차 총회록(1938년)에 첨부된 “조선예수교장로회 명칭 급 주소”이고, 감리교는 “1938년도 재단법인기독교조선감리회유지재단 규칙 급 설명서”의 부록인 재산목록이며, 성결교는 기관지인 「활천」과 조선총독부관보, 구세군은 「구세공보」, 성공회는 「조선성공회보」이다. 감리교의 자료에는 번지, 건물의 크기 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명기되어 있다.

그 명단을 여기에 옮긴다.

<장로교회>

제일교회(해주면 중정)/광석정교회(해주면 광석정)/해주항교회(해주면 해주항)/연평교회(송림면 연평리)/송간리교회(서석면 송간리)

<감리교회>

남본정교회(해주읍 남본정 186)/추정리기도처(산면 추정리 787)/용당포기도처(변면 용당리 204의 2)/화산리기도처(동강면 화산리 산266)/남육정



출처: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편집자 작성

기도처(해주읍 남옥정 123)/청풍교회(해주읍 청풍정 729)/취야교회(가좌면 국봉리 131의 4)/이목교회(검단면 온천리 871)/냉정리교회(검단면 냉정리 148)/지남리교회(검단면 지남리 219)/갈현리교회(검단면 갈현리)/죽천기도처(장곡면 죽천리)/청단교회(추화면 월학리 131)/용수동교회(금산면 송전리 57)/청암교회(청룡면 영양리 538)/용매교회(청룡면 용매리 492)/동산리기도처(청룡면 학월리 1068)/신촌기도처(추화면 만송리 410?)/울동기도처(동운면 삼명리 107)/팔학리 기도처(내성면 팔학리)/여개교회(내성면 오봉리)

〈성결교회〉

해주교회(해주부 동영정 151)/해주향교회(해주부 동애리 96)

〈구세군〉

고수리영문(동운면 고수리)/공수리영문(동운면 공수리 136-1)/노적산영문(동운면)/해주영문(해주읍 북옥정 41)/담동영문(월록면 담동)/주소 불명-세거리영문/현암영문/점암동영문/세장연문(세평영문)/탑골영문



출처: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편집자 작성

〈성공회〉

연안교회/철골교회

이 교회들은 거의 모두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교회가 아니라서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해주라고 하면 해주구세병원도 기억해야 한다. 평양의 첫 선교사였고 청일전쟁 때 과로와 질병으로 순직한 아버지 홀(W. J. Hall) 선교사의 뒤를 이어 한국에 와서 해주를 중심으로 결핵퇴치 등에 큰 기여를 한 셔우드 홀 선교사의 숨결이 스며 있는 곳이다. 해주는 그를 통해 크리스마스 씨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해주구세병원에는 부속교회가 있었다. 해주구세병원이 있었던 곳도 찾아보고 싶다.

이 교회들을 찾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존재는 물론 현지 주민들이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일세대 주민들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더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옛 지도와 현재의 지도 대조, 구글 어스 활용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독자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황해도는 189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다. 이는 1884년 알렌 선교사와 1885년에 내한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활동하기에 앞서 황해도 장연군에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에 의해 세워진 ‘소래교회’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구역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구분되지 않고 ‘황해도’였다. 황해도라는 지명은 조선 건국 초기인 1395년 풍천(豊川)과 해주(海州)의 지명을 따서 풍해도(豊海道)로 부르다가 1417년에 황주(黃州)와 해주(海州)의 머리글자를 따서 황해도(黃海道)로 개칭하여 불렀다. 해방 이후 1954년 10월에 황해도를 둘로 나누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구분하였다.

황해도에는 일제강점기 12개의 성결교회가 설립되었다. 황해북도에는 사리원성결교회(沙里院聖潔教會), 매양성결교회(梅楊聖潔教會), 신막성결교회(新幕聖潔教會), 곡산성결교회(谷山聖潔教會), 겸이포성결교회(兼二浦聖潔教會), 황주성결교회(黃州聖潔教會) 등 6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황해남도에도 재령성결교회(載寧聖潔教會), 신천성결교회(信川聖潔教會), 연안성결교회(延安聖潔教會), 해주성결교회(海州聖潔教會), 문화성결교회(文化聖潔教會), 해주항성결교회(海州港聖潔教會) 등 6개 교회가 세워졌다. 이번 호에서는 황해남도 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를 소개하려고 한다.

황해도 지역 성결교회 전도활동은 1926년 사리원성결교회를 설립함으로 시작되었고 황해남도에서의 전도활동은 1929년부터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성결교회 첫 교회(복음전도관)의 주임교역자요 경성성서학원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성결교회 태동의 주역이었던 황해남도 해주 출신 교역자 정빈과 황해남도

설립된 6개의 성결교회 가운데 재령성결교회를 제외하고 5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한다.

성결교회 초석을 놓은 황해남도 해주 출신 정빈(鄭彬, 1877년경-1943년경)

정빈의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877년경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8세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고 학문에 남다른 열의가 있어 외국어와 산술도 익혔다. 정빈은 미국 북장로교 모어(Samuel Forman Moore, 1860-1906, 모삼열, 牟三悅)선교사가 1893년부터 조사 김영옥(金泳玉)과 천광실(千光實), 전도인 마영준(馬永俊)과 이승두(李承斗)와 함께 매일같이 열심히 서울시가 전도에 힘썼는데 이때 얻은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때 전도된 사람들로 다음 해 연동장로교회(連洞長老教會)를 설립하였다. 즉 정빈은 연동장로교회 설립 초기 신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연동교회세례교인명부(連洞教會洗禮教人名簿)에는 정빈이 1902년에 세례를 받았으며 거주지는 ‘남부 다동’이었고 가족으로 아내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으며 한문을 잘 사용하였고 1905년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그의 직업이 ‘연동교회 전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빈은 고명우의 소개로 동양선교회가 운영하는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정빈을 소개한 고명우는 연동교회와 같은 북장로교 소속 남대문교회 교인으로 그의 아버지인 고학윤이 1891년 북장로교 부산선교부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이사함에 따라 부산에서 생활하며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웠고 수차례 일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고명우는 1905년 김상준과 정빈을 동경성서학원에 소개하였다. 정빈과 고명우는 북장로교에 속한 장로교회 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빈은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매 주일 재일한인 유학생단체인 ‘태극학회’ 회원 전체가 모이는 주일모임에서 매주 30분씩 설교하였다. 그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연동교회의 신자로 조선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총무를 지낸 김정식이 일본에서 유학중인 청년들의 요청으로 ‘재일한인 YMCA’ 설립을 위해 동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친 정빈은 1907년 5월 경성에 돌아와 김상준과 함께 복음전도관을 설립하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한다. 정빈은 ‘염곡복음전

도관(성결교 최초교회)의 시작과 함께 '주임교역자'로 김상준은 '전도인'으로 활동하였다. 정빈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던 '염곡복음전도관'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내고, 과거 연동교회의 전도자로 사역했던 것을 배경으로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회관을 집회장소로 사용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교파주의 의식을 갖지 않았고 악대와 가두 전도설교와 호별 방문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1908년에는 연동장로교회(蓮洞長老教會)의 교인들 다수가 복음전도관으로 옮겨오며 따라 복음전도관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정빈의 역할이 컸다.

1911년 3월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이 무교정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에 임시로 개설되었을 때 정빈은 성서학원 최초로 한국인 교수가 된다. 1914년 김상준 목사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교수직을 사임하고 북간도에 가서 자유전도자로 지내다가 1917년 다시 성결교회(동양선교회)로 돌아와 안성교회를 개척하였다. 1919년 9월에는 인천교회에 파송을 받아 3년간 목회하였으나 1921년 동양선교회가 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성결교회로 바꾸어 교파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인천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북간도로 떠나 자유전도자로 지내다 1943년경 별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천성결교회(信川聖潔教會)

신천성결교회는 함흥성결교회(북부정성결교회)의 한치국 장로와 원산성결교회의 송계순 장로의 전도활동의 열매로 설립되었다. 두 장로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들의 생애를 전도하는 일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조선의 서부지방인 진남포, 황주, 사리원, 신천 등지에 가서 전도하였다. 이들이 황해도 신천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한 결과 새 결심자 76명을 얻게 되어 1932년 7월에 경성성서학원의 수양생이던 신대균(申大均)을 파송하여 1933년 1월 신천성결교회(황해도 신천군 신천읍 척서리 260)를 설립하였다.

1933년 신천성결교회는 예배당부지는 준비되었으나 건축비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총경비 315원을 들여 12평 5합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무렵 '전선(전조선)장막전도대'가 신천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신결심자 100명과 신생자 195명, 성결자 169명, 타락자 회복 6명, 집회참석자가 5,000여 명이나 되었다. 신천교회는 개척된 지 1년도 안되어 8, 90명의 신자와 100여 명의 유년학생이 모이게 되었고 또한 교회당도 매수하였고 100여 원 하는 경종을 구입하여 달았다.

1936년 11월 신천교회에서 12km 떨어진 '문화면 서정리'에 교회를 개척하

고 초가 6칸의 예배당과 종각을 신축하였는데 주일마다 남녀신자 약 30여 명씩이 출석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1937년 신대균 목사의 후임으로 김상운(金相雲) 목사와 조덕조(趙德祚) 전도부인이 부임하였고 지교회인 문화성결교회를 겸임하며 사역하였다.

1939년에 열린 '성결교회 제2회 연회'에서 신천성결교회에 대해 '순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하며 대(大)부흥 중에 있고 직원들은 일치 협력하여 교회를 위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物心)을 힘써 헌신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일과 풍우한설(風雨寒雪)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예배에 출석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942년에는 대지 92평을 13,000원에 매입하고 47평의 반양식 예배당을 총경비 7,000여 원을 들여 신축하였다. 김기석 목사가 부임하여 사역하던 중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 폐지되었으나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3월말 김기석 목사와 신도 80여 명이 매 주일 모여 예배를 드렸다. 1947년 김기석 목사의 월남으로 인해 목자 없이 지내다가 임광수 전도사의 부임으로 교회는 양으로나 질로나 크게 부흥되어 새로운 빛을 발하며 승리 중에 있으며 인근에 지교회까지 세워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음이 전해졌다.

신천군 일대는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 기간 중 좌우익의 충돌이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1950년 10월~12월 사이에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당하였는데 일명 '신천 민간인학살사건'이 그것이다.

문화성결교회(文化聖潔教會)

문화성결교회(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서정리 159)는 1936년 10월 신천성결교회의 지교회로 신계동(申啓東) 장로의 열심과 헌신 가운데 설립되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군청소재지였으나 '신천'과 통합되면서 읍민 300여 가구가 사는 지역이 되었다. 1937년 11월 4일에는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성황리에 드려 주께 영광을 돌렸다.

1938년 2월 14일부터 1주간 강태준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집회 중에 "방청석에 앉아 야지!"라고 말하며 힐난하던 몇 명의 청년들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화로 통



신천성결교회 예배당

회자복하고 양과 같이 순한 청년신자가 된 일이었다. 또한 김필선이라는 부인은 수년간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는데 집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완전히 나음을 받게 되었다.

문화교회는 설립 당시 초가 6칸을 짓고 예배를 드려오던 중 날로 부흥하여 예배당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1938년 가을에 4칸을 증축하여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었다. 창립 이후 신천성결교회 교역자가 1년에 수차례 순회하는 것 외에는 교역자가 파송받지 못하였지만 교인들은 꾸준히 신앙생활에 열심하였다.

문화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예배당을 재건하고 김기석(金己石) 목사와 신도 50명이 모여 예배드렸다. 1947년에는 남녀교역자가 없는 가운데 직원들이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며 매 주일 4, 50여 명이 모였다.

연안성결교회(延安聖潔教會)



「활천」 1933년 4월호에 실린 연안성결교회 신자일동

연안성결교회(황해도 연백군 연안면 모정리 63)는 경성성서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봉권(李鳳權) 형제가 주의 사명에 순종하여 1932년 7월에 연안(延安)에 파송을 받아 악전고투한 결과 수십 명의 구도자를 얻게 되어 10월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주의 축복으로 구도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더욱이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은 주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예배당 부지 400여 평을 사게 된 것이다. 신자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께 감사드렸고 동시에 예배당이 신건축될 때까지 기도회를 계속하기로 작정함과 동시에 건축을 위해 헌금을 시작하였다.

1933년 11월 이봉권 전도사의 후임으로 김상운(金相雲)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34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안형수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신자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연안성결교회의 첫 번째 개척은 교회

운영상의 어려움 가운데 폐지되고 말았다.

1938년 죽점정성결교회(아현성결교회)에 출석하던 한병겸(韓秉謙) 집사가 연안군청 토목과로 전근되어 와 성결교회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활동함으로 새롭게 연안성결교회(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관천리 195)가 설립되었다. 한병겸 집사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1940년 3월 첫 주일에 해주성결교회의 지교회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구도자가 증가하여 부흥중에 있어 한병겸 집사의 주택 전체를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1940년 7월 1일부터 1주간 해주성결교회 김기삼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장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원을 이루었고 42명 결심자와 헌금 362원을 얻어 교회의 부채도 거의 정리하였으며 주일학생도 매 주일 100여 명씩 모이게 되었다. 또한 새로 세례를 받은 자가 2명, 학습받은 자도 14인이자 되었다.



1946년 한보순 목사 사역 중 연안성결교회 음악대

1941년 5월 20일(화)~21일(수)에 이사장 이명직 목사는 황해구역을 순회하며 연안교회를 방문하였다. 집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신결심자도 5명이나 되어 매우 은혜로운 집회였다. 당시 연안교회의 세례교인은 10여 명이었는데 한병겸 집사의 모 교회인 죽점정성결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1동을 매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역자도 없이 공무에 바쁜 한병겸 집사 개인의 활동으로 이만한 결과를 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연안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연안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여 1946년 3월 신도 100여 명이 윤철한(尹哲漢) 목사를 중심으로 매 주일 모여 예배드렸다.

1946년에 윤철한 목사의 남하 후 한보순(韓寶淳) 목사가 부임하여 목회하던 중에 교회가 부흥하여 200여 명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이 비좁아 어려움이 많았던 가운데 1950년 6월 26일부터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하루 전날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첫 삽도 뜨지 못하였다. 한보순 목사와 다수의 신자들은 1951년 1·4후퇴 때에 인천으로 남하하였다. 남하한 연안성결교회 신자들은 한보순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인천 금곡성결교회를 개척하였다. 남하한 연안성결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서울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고(故)조종남 박사이다.

해주성결교회(海州聖潔教會)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탄식(歎息)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쓰라림의 생애(生涯)를 보내고 있는 해주의 3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1932년 4월에 해주성결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박문익(朴文翼) 전도사를 파송하였다.

박문익 전도사는 1개월 반 동안 구도자를 얻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며 개인전도와 호구방문전도에 열심하는 가운데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조금도 낙심치 않고 용기를 내어 힘써 복음을 전도한 결과 6월 21일에 와가(瓦家) 7칸을 세로 얻고(황해도 해주군 해주부 남옥정 350) 장년 남자 3명, 여자 3명, 유아 3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개척과 함께 6월 24일~27일까지 본부의 '전선순회장막전도대'가 와서 전도회를 열었는데 매 집회마다 1,000여 명이 모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동시에 결심자 20명과 중생자 20명과 성결자 5명을 얻었다. 전도회를 마친 후 본부에서는 여교역자 고영선(高永善)전도부인을 파송하여 주었다. 두 교역자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비지땀을 흘려가며 결심자와 구도자를 열심히 방문하여 30여 명이 출석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도자가 일가월증(日加月證)하게 되어 불과 6개월도 못 되어 장년신자가 50여 명이 나 되었고 신자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게 되었다. 유년들은 예배당이 터질 듯이 많이 모여들어 예배와 성경공부를 일어서서 해야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1932년 12월 14일에 박문익 전도사가 이동하고 후임으로 김홍순(金鴻淳)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 신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도 없고 점잖은 사람들은 웅색한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예배당 앞은 대로(大路)여서 마차와 자동차가 연락부절(連絡不絶)함으로 그 소음들 때문에 예배드릴 때면 정신이 어지러웠다. 신자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모여 합심하여 주께 힘써 간구하였다. 특히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낮 12시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하고 실행하였는데 유년학생들 중에는 사이렌이 울릴 때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도 기도함으로 선생님에게 책망받는 일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33년 1월 1일부터는 예배당건축을 위해 매 주일마다 얼마씩 바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였다.

1933년 6월 21일~27일까지 자비로 전선순회장막전도대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고 모든 신자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중생자 30여 명과 성결자 40여 명을 얻었다. 또한 신자들과 두 감리교회 신자들이 800여 원의 성전건축헌

금을 드렸다.

김홍순 전도사와 신자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당건축에 적당한 위치를 정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1934년 3월에 해주에서 경기도 가장 좋고 교회위치로 적당한 쌍목정(雙木亭) 옆에 있는 토지(황해도 해주군 해주부 동영정 192) 469평을 구입하게 하셨다.

1935년 4월에 신자들은 믿음으로 땅이와 삽을 들고 예배당 터 닦기를 시작하였다. 이어 제2차로 건축헌금을 드렸고 마침내 1935년 5월 5일부터 건평 30평을 1,7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업자와 계약하였다. 김종량 전도부인은 부족한 건축비 모금을 위해 서부지방 각 교회를 순회하였고 읍내에서는 신자들이 책보를 만들어 기부금을 얻으려고 활동하며 열심히 주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준공되었다.

1935년 11월 16일에 허인수 선교사와 슬레터 선교사의 사회로 신축예배당 헌당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헌당식에 이어 신천성결교회 신대균 전도사를 청하여 특별집회를 열었는데 매일 밤 300명씩 모여 큰 은혜를 받았고 결심자도 많이 얻게 되었다.

1938년 2월 14일~20일까지 전선부흥사업을 맡은 이성봉 목사의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결과 신결심자 51명, 중생자 20명, 성결자 31명, 기관지 신구독자 8명이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채무가 400여 원이 있었는데 한 무명의 성도가 300원을 드림으로 부채를 모두 청산하게 된 일이었다.

1939년 2월 26일~31일까지 6일간 성서학원 교수 이건 목사를 청하여 신촌특별부흥회를 열었는데 신자들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한 해주교회는 해주 남산 밑 '오신리'에 가서 전도한 결과 기도소를 신설하여 기도회를 갖고 후에 지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1940년 10월 17일~22일까지 6일간 김영수(金英洙) 선생을 청하여 부흥회를 열었고, 곧이어 26일~31일까지는 이명직 목사를 청하여 부흥사경회를 열었는데 연이은 두 번의 성회를 열게 된 것이 해주교회로서는 획기적 집회인 만큼 시내 각 교파를 망라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또한 부흥회 기간 중 주임목사의 취임식까지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1941년 5월 21일 이사장 이명직 목사가 황해구역 순회차 해주교회를 방문하였을 당시 7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해주교회는 '해주항'에 성결교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섭리로 8월 중순에 7칸의 'ㄱ'자 가옥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수리를 하고 9월 7일 주일에 주임교역자의 사회로 창립예배를 성대하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월 23일부터 1주일간 김홍순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성신의 놀라운 역사

로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전진케 되었다. 이 집회의 열매로 30여 명의 신구도자를 얻었고 해주항 지교회를 위해 400원이 헌금되었다.

해주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해주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주성결교회는 최학철(崔鶴喆) 목사를 중심으로 닫혀진 예배당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다. 1946년 3월 말에는 최학철 목사와 신도 200여 명이 모이고 있었음이 전해진다.

해주항성결교회(海州港聖潔教會)

해주항성결교회(황해도 해주부 동애리 96번지)는 해주항에 성결교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던 해주성결교회 최학철(崔鶴喆) 전도사의 열성으로 1941년 8월 2일에 설립되었다. 해주성결교회는 7칸의 ‘ㄱ’자 집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수리하고 9월 7일 주일에 주임교역자의 사회로 창립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창립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녀 4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부채(負債)를 위해 기도하는 중 주님의 축복으로 해주성결교회 집회를 통해 모든 부채를 청산하였다. 해주항교회는 해주교회의 주임교역자인 최학철 전도사가 겸임하며 사역하였다. 해주항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해주항’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필자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매년 12월 초쯤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판매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썰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강제로 판매하던 일이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등 갖가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결핵 환자들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성탄카드를 우편으로 보낼 때 우표 옆에 크리스마스썰을 붙여서 함께 보내면 왠지 학생들은 자신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썰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이었다는 사실을 필자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다.

2. 감리교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의 부모님

셔우드 홀은 한국에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왔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과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의 첫째아들로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우선 윌리엄 제임스 홀은 캐나다 출신으로 1885년에 미국 퀸즈대학교 의과대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셔우드 홀>

학에 입학하였는데, 1887년 무디의 여름학교에서 의료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명을 받은 이후 뉴욕 벨레뷰병원 의과대학으로 학교를 옮겨 졸업하고 1889년에 의사가 되었다. 그 후 뉴욕 맨해튼 매디슨가진료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젊고 아리따운 로제타 셔우드를 만나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 뉴욕주 리버티에서 1865년에 태어나 1883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잠시 교사로 일을 하다가 1887년 의료선교사가 되고자 펜실베이니아 여자외과대학에 입학하였고, 1889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뉴욕 맨해튼 매디슨가진료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난 것이다. 이 둘은 1889년 12월에 약혼을 하였다. 그 후 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북감리회 여성해외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1890년 10월 13일에 약혼자보다 먼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였고, 서울 정동에 있는 감리교 여성병원인 보구녀관 원장으로 의료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윌리엄 제임스 홀 또한 미국북감리회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다음 해인 1891년 12월 15일에 부산항을 거쳐 12월 16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 홀은 부산에서 같은 캐나다 출신이면서 의료선교사로 이미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후에 원산대 부흥(1903~1907)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 선교사를 만나 환대를 받았다.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92년 6월에 서울에서 결혼하였고, 1893년 11월 10일에 첫째 아들인 셔우드 홀을 낳게 된다.

3. 평양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제임스 홀과 김창식

윌리엄 제임스 홀은 북쪽 내륙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평양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미국북감리회 선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 개척선교사로 파송되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선교하다가 1894년 5월 당시 1살도 되지 않았던 셔우드 홀을 포함한 홀 가족은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이로써 윌리엄 제임스 홀은 선교사로서 온 가족이 평양에 거주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 보면, 푸른 눈의 서양 여성인 로제타 홀과 인형같이 생긴 서양 아기 셔우드 홀을 보기 위해 약 1천 5백여 명의 평양부인들과 아이들이 홀 가족의 집으로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들은 서울, 인천, 부산, 원산 등 일부 지정 및 개방된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편법으로 한국 대리인을

세워 집을 산 후 서양 선교사가 거주한다는 신고가 관아에 접수되어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때 당시 김창식(1856~1929)은 윌리엄 제임스 홀을 도와 평양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관아에 끌려가 예수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받았지만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 “조선의 바울”로 불리기도 하였다. 김창식은 김기범과 함께 1901년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홀 가족들은 서울로 피신했고, 김창식은 평양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세운 광성학교와 평양 제일교회(남산현감리교회의 전신)를 맡아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족들을 뒤로한 채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다시 돌아와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전염병(이질)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1894년 11월에 세상을 떠나 그의 시신은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김창식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빈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선교활동을 펼쳐 나갔다.



<김창식>

4. 로제타 셔우드 홀과 박에스더

남편이 죽자 로제타 홀은 두 살 된 아들과 당시 집사로 일을 봐주던 박유산, 그리고 그의 아내 박에스더(본명: 김점동)와 함께 친정인 미국 뉴욕주 리버티로 돌아가 1895년 1월 18일에 둘째 딸 에디스 마거릿 홀(Edith Margaret Hall)을 출산하였다. 미국에 있으면서 로제타 홀은 박에스더에게 의학 공부를 시켜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도왔고, 미북감리회 한국선교회에 기금을 보내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이 1897년 2월에 설립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35년 은퇴할 때까지 의료선교사로서 특별히 여성,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공헌하였다. 예를 들어, 정동 보구녀관 원장으로 시작된 감리교 여성 의료사역은 서울, 평양, 인천으로 뻗어갔고, 서울은 1893년 동대문 볼드윈진료소로 확장되었는데 이곳은 동대문부인병원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898년 5월 23일 딸 에디스가 죽자 1898년 6월 평양 광혜여원을 개원하였고, 다음 해인 1899년에는 딸의 이름을 붙인 에디스마가렛 어린이 병동을 만들었는데, 광혜여원은 1923년 홀기념연합병원과 통합되어 평양연합기독교병원이 되었다. 1921년에는 인천부인병원을, 1928년에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인천부인병원은 현재 인천기독교병원으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에도 이바지했는데, 정진여학교 맹아반 개설 이후 이것은 평양맹학교 개교로 이어졌고, 191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농아학교의 개교로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로제타 홀은 여성 의학교육에 힘을 썼는데, 1891년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김점동(결혼 후 박에스더)을 포함한 5명의 학생들에게 간호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1903년 에드먼즈와 함께 한국 최초의 간호사양성소를 개설하였고, 1928년에는 서울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개설하였다. 이렇게 불꽃같은 열정으로 선교사역에 전념하다가 1933년 안식년 차 미국에 돌아가 미국에서 머물다가 1935년에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였고, 1951년 4월에 미국 뉴저지 오션 그로브(Ocean Grove)에서 별세한 후 서울 양화진 남편의 묘역 옆에 안장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로제타 홀은 박에스더(1877~1910)를 미국에 데려가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도록 하여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도왔는데, 박에스더는 1900년에 귀국하여 자신 또한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였고 대부분은 로제타 홀과 함께 의료선교와 교육 선교사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과로로 인해 폐결핵으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 박에스더는 191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후에 셔우드 홀이 폐결핵 전문 내과 의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5. 셔우드 홀과 매리언 버텀리

셔우드 홀의 어릴 적 꿈은 사업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아마도 보통의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처럼 부모님을 통해 경험한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셔우드 홀도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다. 그런데 1906년 8월, 당시 13살의 어린 셔우드 홀은 아버지가 세웠던 평양 남산현감리교회에서 하다가 인도한 집회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꿈은 자신의 부모님과 하디 선교사처럼 의료선교사가 되어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셔우드 홀은 하디 선교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겼다. 셔우드 홀은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고 미국으로 건너가 1911년 미국 오하이오주 마운트 허먼(Mount Hermon) 학교를 거쳐, 1919년 마운트 유니언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1919년 하디 선교사가 졸업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의학을 전공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매리언 버텀리(Marian Bottomley, 1896~1991)를 만나 1922년 6월 21일에 결혼을 하게 된다. 셔



〈셔우드 홀〉



〈매리언 버텀리 홀〉

우드 홀은 1923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 롱아일랜드 홀츠빌 서퍼크 결핵요양소에서 결핵을 연구했고, 그의 아내는 1924년에 필라델피아 여성 의과대학과 1926년에 런던 트로피컬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셔우드 홀 부부는 1925년 8월에 미국북감리회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926년 4월 19일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6. 평양이 아닌 해주

로제타 홀은 그의 아들 부부가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왔을 때, 그의 남편을 기념해서 설립된 기흥병원이 있고 자신도 현재 사역하고 있는 평양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북감리회 선교부는 셔우드 홀 부부를 평양이 아닌 해주로 파송하였다.

이에 대해 어머니가 아쉬움을 표하자, 셔우드 홀은 평양에는 이미 의료선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해주에는 의료선교사가 부족해서 자신이 해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어머니를 설득하기도 한다. 사실 황해남도 해주 지역은 황해도의 중심도시로서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감리회와 장로회가 중요하게 선교지로 생각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미국북장로회는 해주와 안악이 아닌 재령을 선교기지로 삼으면서 해주는 감리교 선교지역이 되었다. 인천지역을 담당하던 조지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감리교 선교사는 한국인 전도인 하춘택 전도사를 통해 1902년 해주에 최초의 감리교회를 설립하였고, 1904년에 감리교 해주 선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9년 선교지 분할협정에 따라 해주는 미국북감리회가 담당하는 선교지가 되었다.

아서 노튼(Arthur H. Norton, 1877~1959) 감리교 선교사는 1910년 11월 해주읍 동부4리에 한옥으로 된 시약소를 마련하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1913년에 해주읍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반지와 비녀를 헌금해 벽돌로 된 교회를 건축한 것에 자극을 받아 미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1913년 10월 10일에 병원 건축을 완성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루이자홈즈노튼기념병원”(Louisa Homes Norton Memorial Hospital) 혹은 줄여서 “노튼기념병원”이라고 불렀고, 한국 이름으로는 “구세병원”(救世病院)이라고 하였다. 노튼 선교사는 1922년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자리는 하이디(Klore W. Hidy) 선교사가 맡았지만 2년 만



〈평양 기흥병원〉

인 1924년 건강상의 이유로 해주 구세병원장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는데, 이곳에 셔우드 홀이 의료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다.

7. 해주 구세요양원



해주구세요양병원, 셔우드 홀 가족과 직원들

셔우드 홀은 해주 구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해주 의창학교의 교장직도 맡아 그의 아내와 함께 의료와 교육 선교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 옆에서 그의 의료선교사역을 도와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이었다. 김영진은 셔우드 홀과 같은 해인 189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는데, 송실학교와 현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

한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1921년에 해주 구세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창식도 해주에서 거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셔우드 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의 시신이 담긴 관을 지게에 짊어지고 평양에서 서울의 양화진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 준 김창식,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영진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가졌을 것이다.

해주에서 의료와 교육 사역을 감당하면서 셔우드 홀은 자신이 이모처럼 여겼던 박에스터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폐결핵 퇴치와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 건립을 계획하게 된다. 셔우드 홀은 그의 어머니와 미국북감리회 선교부의 도움으로 1928년 해주 왕산리에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구세요양원을 건립하였고, 요양원 안에 결핵위생학교를 개교하여 결핵환자 치료와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32년부터 크리스마스시를 발행하여 결핵에 대한 계몽과 재정을 마련하는 일에도 공헌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40년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홀 부부는 인도에서도 결핵환자 치료와 퇴치를 위해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1963년에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였고, 1984년에는 대한결핵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셔우드 홀은 199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되어 그의 유해는 1991년 4월 17일 대한결핵협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후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8. 나가는 말

오늘날은 성탄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예전처럼 크리스마스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선교사로 왔던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한국에서 잃었지만, 부모님의 뒤를 따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 간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한 셔우드 홀 선교사의 헌신과 노력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셔우드 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한국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진정한 선교사였다. 어서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해주를 방문하여 셔우드 홀 선교사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싶다. ☺



해주를 배경으로 한 책

닥터 홀의 조선회상

닥터 셔우드 홀 저, 김동열 역
출판사: 좋은씨앗
출판일: 2009년 12월 04일
원제 :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이 책은 해주에 내려오는 “보배 이야기”라는 전설로 시작한다. 보배는 황해도 해주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소녀이다.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터득하여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한다. 열세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보배는 새로 꾸릴 가정과 신랑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날을 보내며,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새 폐병에 감염되고,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날, 예쁜 색동옷을 입은 채로 보배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책은 보배와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 조선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황해도 해주에 세우고 환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썰을 한국에 보급한 셔우드 홀과 그 가정의 이야기이다.

윌리엄 홀(William James Hall)은 1891년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1892년 6월 27일에 R.S.홀(로제타 셔우드 홀 Rosetta Sherwood Hall)과 결혼했다. 같은 해 7월, 평양선교기지 개

척 책임자가 되었으며 의료봉사를 위해 지방을 다니며 순회진료·선교활동을 병행했다. 1893년 11월 10일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태어난 후 이듬해 온 가족이 평양으로 옮겼으나 주민들의 냉대와 정부의 박해로 6월에

서울로 철수하였다. 10월, 윌리엄 홀 홀로 평양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1894년 11월 24일 34살의 나이에 발진티푸스로 사망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다. 아내 로제타 홀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가며 아들 셔우드 홀을 키웠고 셔우드 홀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결혼하여 조선에 돌아와 해주에 의료선교사로 정착한다.

하루는 해주의 기독교를 박해하던 해주의 관리와 그 아들이 폐병에 걸려 해주구세병원을 찾는다. 당시 조선에서 폐병은 강한 전염성을 지닌 불치병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다. 셔우드 홀은 뉴욕의 결핵 요양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대 최고의 결핵 전문가 에드윈 콜브(Edwin Colb)에게 훈련을 받은 결핵 전문가였다. 특히 조선의 결핵 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독성이 함유된 뱀탕을 먹거나 증상이 호전되면 무리해서 일을 하는 등 결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큰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결핵 치료 이후 요양이 불가능한 조선의 상황을 깨달은 셔우드 홀은 완벽하게 치료되기 까지 요양할 수 있는 결핵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조선에서 나고 자란 서양인으로서 조선말에 능통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조선·일본의 고위층과 교분을 이어가고 있었다. 셔우드 홀의 헌신과 주변의 도움으로 해주구세요양병원은 성공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고 발전하여 황해도만이 아닌 전 조선을 대표하는 결핵 요양병원으로 발전한다. 해주구세병원이 발전하기 까지 셔우드 홀의 노력 뿐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생각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셔우드홀과 구세요양병원의 구성원들은 선교사, 선교병원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 셔우드 홀은 그 발전의 내막을 이 책에 기록한다.

이 책의 서두에 소개된 “보배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 보배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아름다운 남산 기슭, 보배가 결핵으로 숨진 그 자리에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결핵 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된다. 이 요양원의 설립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과 역량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강탈당하는 비극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결핵병원이 바로 셔우드 홀에 의해 해주에 건립된 해주구세요양병원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첫 서양인”, “3대가 한국 땅에 묻힌 가정”으로 유명한 셔우드 홀 가문의 한국사랑과 그들이 해주 땅에 흘려보낸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한 선한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해주 출신의 유명인

김구(金九, 1876-1949)



김구는 조선 황해도 해주목 백운방 텃골 출신이다. 김구의 원래 이름은 김창암(金昌巖)이었는데, 1893년(18세) 동학에 입교하면서 김창수(金昌洙)로 바꿨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김구(金九)로 바꿨다. 그는 젊은 시절 동학, 불교를 신봉하였으나 1903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기독교에 귀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반기를 이끌던 지도자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개조파와 창조파가 모두 이탈, 독자세력화하면서 규모와 정통성이 공히 크게 약화된 임정을 이끌었고, 과감한 항일 활동으로 세계에 존재감을 알렸다. 광복 이후에는 귀국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 등과 대립하였으며, 우익의 주도권을 놓고 이승만과 라이벌 관계를 이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安斗熙)에게 권총으로 암살당하였다.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으며, 저서로는 《백범일지》가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重章)이 추서되었다.

최성모(崔聖模, 1873-1936)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황해도 해주 출신의 목사이다. 일찍이 서울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북감리교 목사가 되어, 해주의 남본정교회(南本町教會)에서 사역했다. 1919년 2월 26일 이승훈·오화영·이필주·함태영·안세환·이갑성·박희도 등 기독교 측 대표들과 한강(漢江) 인도교에서 만나,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에 서명 날인할 기

독교 측의 대표자를 뽑았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에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민중교회사업과 전도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최자실(崔字實, 1915-1989)



최자실은 1915년 8월 15일 황해도 해주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최자실이 6세 되던 해에 사망하여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의 여성 전도사로, 오순절 교회 선교활동을 통해 선교에 공헌했다. 41세에 대조동 천막촌에서 조용기 목사와 공동으로 목회를 시작하여, 1962년 서대문에서 순복음중앙교회(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목사로 재직

하다 1989년 11월 9일 미국에서 심장 마비로 별세하였다. 한세대대학교 김성혜 총장의 어머니이며 조용기 목사의 장모로 유명하다. ☎

해주의 대표음식

해주교반(해주비빔밥)



해주비빔밥(사진: 조선신보)

북한에서 편찬한 『조선향토대백과』에서는 해주의 대표 음식으로 해주비빔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주비빔밥은 평양, 전주, 진주의 비빔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문났다. 수양산 고사리와 구워서 부스러뜨린 김을 넣는 것이 특색이었다.” 1921년 방신영이 지은 『조선요리법』에도 해주비빔밥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밥을 되직하게 지어 콧직한 그릇에 퍼놓고 무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도라지나물, 미나리나물, 고사리나물 등을 만들어 …,

누르미, 산적, 전유어를 잘게 썰어 가장자리로 돌려 얹고 또 그 위에 튀각을 부스러뜨리고,” 해주비빔밥의 특징은 부스러뜨린 김(혹은 튀각)을 넣는 것이다. 김을 종이 조각과 같이 말려 기름과 소금으로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인데 일제강점기 황해도의 여촌에서는 김 양식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부터인가 해주비빔밥은 맨밥을 쓰지 않고 돼지비계에 볶은 밥에 고명을 얹는 형태로 발전했다. 해주시내 중심부의 해주식당이 볶음밥을 사용한 해주비빔밥으로 유명세를 탔다. 해주비빔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해주교반”으로 불리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주식당에서 비빔밥을 맛보고 이름을 해주교반이라 지어주며 “해주교반은 우리 인민들이 즐겨 먹는 별식 중의 하나로, 식당들에서 이런 별식을 찾아내 적극 봉사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국내 한 유명 편의점에서 ‘해주비빔밥’을 간편식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강령녹차

일명 ‘은정차’라고도 불리는 강령녹차는 1982년 중국 산둥성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이 차나무를 보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 황해남도 강령군에 재배를 지시한 데서 유래했다. 김일성은 생전 차(茶)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에 바쁜 일반 주민들은 차를 마실 여유를 갖지 못했지만, 김일성 일가를 비롯한 최고위급 사이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생전 강령의 차 재배농장을 자주 찾았으며 평양시 창전거리 등지에 찻집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정일 사후 2012년 5월 김정은은 창전거리의 은정찻집을 찾아 “이 찻집에는 우리 인민들이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려고 마음 쓰신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며 새단장을 지시했고 이후 은정찻집은 현대식 건물로 세워졌다. ☺



강령녹차 선물세트(사진: 조선의 오늘)

참고

-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 열린책들, 2023)
김양희,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잖구나』 (서울: 폭스코너, 2019)

청둥이고요. 김종태대학은 사범대학이죠. 1960년 대엔가? 70년대에 서울에서 남로당 하던 사람 이름이죠.

해주여관(해주호텔)은 김일성동상 바로 옆에 있고, 외국인들이 다닙니다. 백인들도 봤고, 중국인들도 백인보다 더 많이 다닐 텐데 외모로는 외국인인지 모르죠. 흑인들은 못 봤어요.

해주의 랜드마크 혹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가장 유명한 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주경기장 바로 앞에 옥계각이라는 2층짜리 한옥 굽속집이 있습니다. 평양의 옥류관 비슷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해주의 랜드마크로 봐야죠.

해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12층짜리가 있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에 군사동원부 사람들 재우려고, 합숙식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1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둘째는 선산동이라는 용당 넘어가는 고개 있는 데에 12층짜리 북한의 현대식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301대남연락소가 하나 있습니다. 301대남연락소는 빼라 뿌리고, 대북전단 하고 대남간첩을 거기서 파견하죠. 해주항 있는 용당에 잠수함기지도 있어요.

해주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특별히 없어요. 김구가 해주 사람이고, 안중근이 재령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해주로 이사왔다가 남포로 이사갔다는 것도 남한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해주 출신 탈북자라서 어떻게 알고 안중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락하시는데, 안중근 유적지나 다른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김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에 <위대한 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구가 상해임시정부 인장



1906년 해주 시절의 김구 (맨 뒷줄 오른쪽 끝)

을 김일성에게 바치면서 “당신이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김구가 일본 순사를 죽이고 도망치다가 김일성 할아버지 김보현 집에 3일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영화 내용으로 보면 ‘김구도 우리 수령님 가문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해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몰라요.

해주는 바다에서도 멀지 않은데 주민들이 휴식하는 휴양지가 있나요?

해주 시내에서 학현동 넘어가는 쪽에 해주성이 있어요. 폭포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경치가 좀 좋고, 보통 잘사는 사람들이 가죠. 외화별이 일꾼이나 간부들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닭이라도 한 마리 끓여서 한잔하러 가죠. 황해남도에 유명한 곳은 벽성에 구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율곡 선생이 공부했다는 소현서원이 구곡에 있어요. 경치가 엄청 좋아요. 장릉 쪽에 나가면 몽금포가 있는데, 4군단 부업지가 되어서 일반인들은 못 가죠.

해주에서 평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해주-평양-남포로 가는 열차를 12열차라고 해

요. 정시로 다닐 때, 해주에서 1시 5분 출발하면 오후 7시 반에 평양에 도착해요. 90년도부터 슬금슬금 기차 내려올 게 안 내려오고 하더니 김일성 죽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더 심해졌죠. 시간표는 전혀 의미가 없죠.

해주에서 사리원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해주에서 사리원까지 180리니까 80킬로도 안 되는 거죠, 안 멀어요. 지금은 다 써비차로 돈 내고 다니죠.

저 있을 때, 해주에서 사리원까지 북한 돈으로 2만원 내고 2시간이면 가죠. 해주에서 사리원까지는 포장도로예요, 물론 포장이다 깨지기는 했죠.

주변에 군 중에 왕래가 많은 지역이 있나요?

해주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쌀은 있어야 하니까 곡창지대 쪽으로 많이 나가죠. 연안장, 대천장, 벽성, 강령, 웅진으로 다니고요. 강령 쪽에는 해산물이 나와요. 미역, 다시마, 굴, 김. 중국에 수출하는 해삼도 나와요. 쌀 구입하려면 연안장 쪽으로 많이 가죠.

해주에서 강령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강령반도 보시면 해주에서 연안보다 곱도 더 멀죠. 380리 정도라 멀기도 먼데 교통이 불편해요. 대개 자전거로 가는데, 해주에서 연안까지 120리를 하루로 잡죠. 해주에서 연안은 자전거로 서너 시간, 반나절 정도 걸려요. 차로는 한두 시간 걸리구요. 그렇다고 언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주는 강령, 웅진, 연안이랑 교류가 있는 편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해주랑 개성이랑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구요. 해주-배천-개성까지 철

도로 갈 수는 없나요?

개성까지는 철도가 없어요. 배천까지만 가요. 개성까지 가려면 사리원 통해서 돌아가야하죠.

개성은 접경도시라 타도시와 왕래가 쉽지 않던데, 해주는 어떤가요?

해주는 그런 식으로 특별 관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느 지역이 더 심한 건 없고 다 심하게 통제합니다.

남한과 가까운 점으로 인해서 특수하게 느껴지는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북한에는 숙박검열제도가 있어요. 친척 동기간이라도 방문이나 숙박을 하면 도착해서나 떠날 때나 일일이 인민반장에 보고하고 확인받고 아주 심하게 통제합니다. 해주라고 해서 더 심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히 평양에는 승인번호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군마다, 구역마다 증명서 떼어주는 ‘2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평양, 라선, 신의주, 개성 이 네 개 도시는 지역을 이동할 때 2부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중앙당까지 올라가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북한 내에서 남북 주민 간 교방이 있었지요?

황해남도에서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1976, 1977년에 31호 주민교방이라고 해서, 황해도 연안의 호남리, 신양리, 송오리 대여섯 개 리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고 함경도 사람들이 황해도로 왔거든요. 배천은 거의 다 했죠.

31호 교방을 한 지역이 모두 남한과 가까운 지역인가요?

그렇죠. 바닷가 보이는 지역은 다 했죠. 조금이

라도 남한과 관련이 있거나 친척, 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교방에 포함돼서 함경도로 옮겨 갔어요. 남쪽 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남겨 뒀죠.

해주에서 살 때, 개성공단 건설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개성공단에 대해 처음에는 극비로 해서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요.

개성공단에서 물건이 흘러나올 때 해주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럼요. 초코파이, 찰떡파이가 날랐죠, 애들 동복(패딩) 사다 입혔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초코파이 같은 건 한국 사장님들이 북한 노동자들 간식으로 준 거예요. 초코파이, 쿠쿠밥가마, 찰떡파이, 동복, 김연아커피, 작업화 등이 개성공단에서 나왔는데, 황해도 사리원까지는 퍼졌을 걸요?

황해도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개성공단의 영향도 있고 하니, 일반 북한 사람들보다 남한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잘 알고 있나요?

빠른 게 아니라 더 잘 알죠. 황해도에서 TV를 켜면 한국 TV가 잡힙니다. 한국드라마나 웬만한 프로는 같은 거는 생방송으로 봅니다. 연백, 해주, 강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의 드라마와 음악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CGNTV 화면 캡처)

령, 웅진, 배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35년 전부터 한국방송 봤어요. 해주나 황해도 사람들은 10명이면 10명 다 보죠.

한국드라마 몰래 보면 총살하는 법이 생겼다가 너무 다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황해남도에서 CD 알판으로 제작해서 평양이나 사리원에 팔죠. 제가 있던 시절에는 본 사람은 처벌 못해도 복제해서 판매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았죠.

한국 방송CD가 중국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주에서 본방을 녹화해서 북한에 퍼지는 거군요? 라디오는 많이 듣나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TV보다 라디오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장롱에 다 감추고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한민족방송에서 나오는 “정다운 얼굴 그리운 목소리” 많이 듣죠. 기독교 방송을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흥미가 없어서 바로 돌려요. 황해남도에서는 집을 사고팔때도 그 집이 남한방송이 안 잡히면 흠이 될 정도였어요.

황해도, 특히 남쪽 지방 말투는 남한과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쪽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함경도는 약센트가 세잖아요. 욱도 세구요. 황해도 사람들은 평안도나 함경도랑 다르게 말이 느리고 말끝을 길게 끌어요. 해주보다는 개성이 더 끌어요.

황해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는 어디인가요?

연안이죠. 김일성이 곡창지대로 인정한 곳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황해도는 바다도 가깝고 곡창지대도 있어서 형편이 조금 나았을까요?

북한 평남도 평원군 숙천 열두삼천리벌이 있는



연백평야 전경, 해주와 인접한 연백평야는 한반도의 대표적 곡창지대 중 하나이다.

데, 명예농장이고 제일 넓어요. 두 번째가 연백벌, 재령 쪽에는 남으리벌이 있어요. 먹고 남고, 쓰고 남고, 누구 퍼주고도 남는다고 해서 남으리벌, 벽성에 취야벌도 있죠.

황해남도에 이렇게 곡창지대인데 먹을 게 제일 없어요. 북한 온 나라가 황해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농사지으면 군부대, 군장병 몇 톤, 중앙당 몇 톤 다 퍼주고 없어요. 황해남도에 리를 자 붙은 거 세 가지가 없는데, “쌀, 불, 물” 이 없다고 합니다. 강도 없고, 불도 없고 탄도 없지, 물도 귀하지, 쌀도 다 뺏기지...

고난의 행군 때 황해도에서 많이 굶어 죽었고, 황해도는 3월부터 보릿고개 들어가요. 풀도 안 나왔지. 오히려 국경 가까운 함경도보다 가난하고 제일 없는 게 황해도입니다.

해주에 제일교포나 화교들이 있나요?

화교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황해도

가 이렇게 힘드니까 다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교포들도 옛날에 온 사람들은 있지만, 청진, 함흥, 평양, 남포, 사리원 이런 데 있지, 황해남도에는 얼마 없어요.

해주에는 중앙급 대학이 없죠?

네. 없죠.

그래도 제일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그저 의대죠. 의대도 과를 좋은 거 받아야, 임상학과 같은 걸 가야 돈을 벌죠.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한다던데, 해주는 어떤가요?

해주에서도 마약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하는 건 못 봤어요. 그것도 외부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약이 비싸가지고 황해도는 이거 사서 할 형편이 안돼요. 제가 남한에 와서 들어보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게 된 게, 마약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건지 아닌지 한두 번 하다 보니 중독이 됐다 하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해주에 결핵요양병원이 크게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많아요. 북한의 각 군마다 결핵요양소는 다 있어요. 해주에 학현동에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세운 그 결핵요양병원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런 건 몰라요. 다만, 황해남도 연안군 부흥리에 예배당이 있어요. 보기에 예전 건물이고, 아주 튼튼해 보여요. 십자가나 종 매달았던 자리가 남아있는데, 동네 사람들도 예배당이었던 걸 다 알죠.

그런데 해주에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기독교 믿고 잡혔다거나 비슷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봤다고 총살당하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도 북한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죠. 평생에서는 그 일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책을 열 몇 명이 봤다고 모조리 한날한시에 죽였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아신 건가요, 아니면 북한 당국 차원에서 교육 영상으로 접하신 건가요?

소문이 나서 알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알잖아요. 그분들이 말을 하더

라구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 영상이면 북한 사람들에게 절대 안 보여주죠. 있다면, 북한 사람들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보위부원 교육할 때 보여주려는 내부용일 거예요.

그 소문이 돌았던 건 언제쯤이었나요?

그게 92년도인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그때죠. ‘고난의 행군 시작되고 힘들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도 성경이 무슨 신비한 책이라는 생각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남한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저한테 “무슨 책 보겠냐?”고 물어보길래 “성경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갖다주더라고요. 🐟

언론에 비친 해주의 모습들

해주 토끼농장에서 술판 벌인 간부들

데일리NK는 2025년 3월 19일 “황해남도 당 위원회와 해주시 당 위원회가 해주시의 토끼종축장이 매번 일을 잘 한다면서 방식상학(方式上學, 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를 모든 단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수업)을 조직했는데, 이에 간부들이 와서는 먹자판, 술판을 벌여 토끼종축장 종업원들의 비난을 샀다”고 전했다.

데일리NK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주시 토끼종축장은 ‘풀 먹는 짐승으로 고기도 생산하고 털, 가죽도 생산하라’는 당의 정책을 받아안은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마다 발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소식통은 “2025년 2월 말부터 3월 7일까지 거의 열흘간 방식상학을 명목으로 일꾼(간부)들이 내려와 매일 토끼를 잡아 풍성한 술안주를 만들어 먹자판, 술판을 벌이고 휴식과 오락의 시간을 보냈다”며 “종축장에는 이렇게 찍하면 일꾼들이 내려오는데 일꾼들을 그냥 보내면 트집 잡힐 것이 뻔하니 엄지 토끼를 잡아 토끼고기를 대접해 돌려보내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최근에 당에서 간부들의 비리와 사적 이익 추구를 문제시하고 처벌을 내리는 사례들이 자주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사진: 데일리NK, 2025.03.19)



해주시 토끼종축장의 연구원들 (사진: 노동신문·뉴스1)

해주시 “반동사상 접하면 법적 처벌” 강연에 반응 썰렁



새학기를 맞은 북한의 대학생들 (사진: 북한선전매체, 서광)

데일리NK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2024년 10월 말 황해남도 안전국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강연회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주시 안전부는 중앙에서 내려온 강연자료를 바탕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해주시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해설대원

들과 함께 해주시 내 20여 개의 대학 및 전문학교들을 돌며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와 ‘적들의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됐고, 특히 반동사상에 해당하는 외부 문화를 접할 경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에 근거한 법적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매번 반복되는 사상 강연일 뿐”이라며 크게 호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안전부 안전원들은 강연회 조직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주시 청년동맹은 2~3명으로 구성된 4개 조의 해설대를 두고 있는데, 이들만으로 해주시에 있는 20여 개 이상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열흘 내에 다 돌며 강연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원들은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수시로 내려오는 데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안전원들은 말은 지역 인민반 강연을 조직하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대학생들과 청년 대상 강연에까지 얽매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러모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2024.11.12.)

김여정 비난한 해주 주민, 일가족 행방불명

2024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난한 북한 주민 2명이 체포되고, 그 가족들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11월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해주시에 사는 주민 2명이 지난달 중순 김여정이 발표한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담화문을 보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2명의 주민은 평소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체포되기 전날에도 함께 있으면서 김여정과 당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몰래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다른 주민이 보위부에 밀고하면서 붙잡혔다.

두 사람은 최일선에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는 김여정에 대해 “치마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서 야단인가” “인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뒤에서 잘 보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체포된 다음 날 이들의 가족들도 갑자기 사라져 주민 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동네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두 가족이 사라진 것에 경악했고 지금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며 “특히 이 두 가족과 친분이 있던 주민들은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불뚱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매체에 전했다.

한국과 인접한 해주시에서는 이처럼 주민들이 체포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해주시는 예전부터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최근 해주시의 또 다른 주민도 사석에서 술을 마시며 국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보위부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참고: NK조선, 2024. 11.06)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사진: 노동신문, 뉴스1)

한국 정치정세 강연회 내용에 궁금증 제기한 대학생들 불려가


2024년 12월 한국 내부 정치정세와 관련한 강연회를 들은 황해남도 해주시의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이하 해주교원대학) 학생들이 강연회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는 2024년 12월 11일 “해주교원대학에서 연말을 맞으며 괴뢰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그런데 대학생들은 강연회에서 처음 듣는 내용에 의문을 품고 끼리끼리 모여서 발언들을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주교원대학에서는 지난 12월 4일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국의 정치정세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는데, 이 중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 학생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자아냈다.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뒤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지지율이 라는 게 무엇인가”,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감히 수령의 지지율을 평가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서로 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동향은 한 학생에 의해 대학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보고됐고, 또 이것이 대학 당위원회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학교 전반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강연자가 강연에서 괴뢰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발언들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 아니냐”, “강연 내용을 놓고 토론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참고: 데일리NK, 2024. 12.11) 

해주의 각종 개발 소식

북한, 해주시 장방농장에 새 주택 건설...“천지개벽 문화농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7월 31일 “황해남도 해주시 장방농장에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진행됐다”라면서 “농촌혁명의 새 시대에 천지개벽되는 황남의 문화농촌”이라고 선전하며 새로 건설된 주택단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참고, 사진: 2024.07.31, 뉴스1)



北 황해남도, 해주학생신발공장 준공

북한 황해남도 해주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2024년 12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2025년 1월 1일 “전날 열린 준공식에는 박윤철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와 관계부문, 공장의 일꾼, 종업원, 해주시내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으며 “김철범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미래를 사랑하라!”는 간판이 붙은 신축 신발공장의 외관을 보도했다.

(참고, 사진: 노동신문, 뉴스1)



해주시 수양산은하피복공장 긴급 계획에 ‘단기 생산 전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8월 16일 공개한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의 방역 모습. (사진: 노동신문, 뉴스1)

황해남도 해주시에 위치한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이 긴급한 수출 계획 수행을 위해 최근 단기 생산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2024년 7월 11일 “해주시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은 1차 피복 가공생산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면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단기 생산 전투를 벌였다”며 “이 기간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침식(寢食)하며 일하고 철야에도 생산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1차 피복 가공 품목은 기능성 운동복과 티셔츠, 후드티, 바지, 요가복, 동복(겨울옷) 등으로, 앞서 공장은 2024년 6월 중국 내 주요 거래처로부터 대규모 피복 생산을 위탁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번 계약은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이 돼야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신뢰도 저하 및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어 공장은 긴급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서라도 반드시 기일을 보장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했다.

특히 이번 긴급 생산은 공장이 빠르고 정확하게 요구한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요 거래처는 물론 잠재적인 거래 고객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점에서 공장은 활기를 띠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였다고 한다.

(참고: 데일리NK, 2024.07.11)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ORLD WATCH LIST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Revelation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 | | | | | | | |
|-----------|-------------|--------------|-----------------|-----------|----------------|-------------|
| 1 북한 | 11 인도 | 21 모로코 | 31 멕시코 | 41 카타르 | 51 말레이시아 | 61 스리랑카 |
| 2 소말리아 | 12 사우디 아라비아 | 22 라오스 | 32 오만 | 42 코모로 | 52 아제르바이잔 | 62 벨라루스인 영토 |
| 3 에멘 | 13 미얀마 | 23 모리타니 | 33 에티오피아 | 43 카메룬 | 53 케냐 | 63 브룬디 |
| 4 리비아 | 14 말리 | 24 방글라데시 | 34 튀니지 | 44 베트남 | 54 네팔 | 64 르완다 |
| 5 수단 | 15 중국 | 25 우즈베키스탄 | 35 콩고민주공화국(DRC) | 45 터키 | 55 탄자니아 | 65 온두라스 |
| 6 에리트레아 | 16 몰디브 | 26 쿠바 | 36 부탄 | 46 콜롬비아 | 56 러시아 연방 | 66 토고 |
| 7 나이지리아 | 17 이라크 |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37 모잠비크 | 47 키르기스스탄 | 57 지부티 | 67 버레인 |
| 8 파키스탄 | 18 시리아 | 28 니제르 | 38 카자흐스탄 | 48 부르나이 | 58 쿠웨이트 | 68 기니 |
| 9 이란 | 19 알제리 | 29 투르크메니스탄 | 39 타지키스탄 | 49 차드 | 59 인도네시아 | 69 우크라이나 |
| 10 아프가니스탄 | 20 부르키나 파소 | 30 니카라과 | 40 이집트 | 50 요르단 | 60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70 앙골라 |
| | | | | | | 71 베네수엘라 |
| | | | | | | 72 우간다 |
| | | | | | | 73 코트디부르 |
| | | | | | | 74 레바논 |
| | | | | | | 75 감비아 |
| | | | | | | 76 남수단 |
| | | | | | | 77 벨로루시 |
| | | | | | | 78 필리핀 |

월드와치리스트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프도어의 분석가들에 150개국의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구성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억압을 추적하는 전문제를 사용해 기록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시간의 간수 및 심각성, 그리고 삶의 5개 영역에서 이들의 신앙 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